

“다시 일상으로...” 정부차원 첫 언급

세월호 참사 한달 경기 침체
“국민·기업 애도 분위기 속
소비·생산·투자 적극 임해야”
玄 부총리 조심스럽게 밝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언급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정부 차원의 첫 언급이다.
현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모두에게 아프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생산·투자 등 일상적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 이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개혁 등 경제 현안들이 표류하면서 어렵게 살려둔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 달 사이 환율도 4% 이상 하락해 수출 전망도 안갯속으로 진입하는 국면이다.

그동안 외국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정부 고위 인사의 입을 통해 ‘일상’이 언급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 부적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국가 전체가 멈추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며 “조만간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선뜻 하지 못하던 말을 현 부총리가 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언급은 정부 차원의 분위기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경기회복 전망에 “노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다.”
사실 1분기부터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경제가 다시 침체되는 모습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나타났다. 여기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며 “경제주체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2일 웰스트리트저널 서울특파원을 지낸 미국 일간 스타 트리뷴의 경제에디터 에번 램스테드가 지적한 사항과 맥을 같이한다.
램스테드는 기고문에서 “어떤 한국의 유명 인사도 9-11테러 이후 토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먼처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고 말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국민들에게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무릎 꿇지 않거나 전 뉴욕시장이 했던 것처럼 일상생활과 일터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지 않는다”며 “정치인을 비롯한 한국인 리더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다시 일어서자(It's OK to move on)’고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담화문’ 낸 김원규 사장 (우리투자증권) 농협 편입 앞두고 “희망퇴직 최고 수준 보상”

조직 슬림화 지체할 수 없어
직원들에 적극적 참여 호소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실수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현 임원들은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조심으로 돌아가 회사를 위한 업무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후 조직을 재검토하고 강도 높은 비용절감 조치도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사장은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의 희망퇴직 참여를 호소했다. 김원규 사장은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번 희망퇴직에 한해 높은 수준의 보상과 대우를 보장한다”며 “이번 희망퇴직 시기 이후에는 경영여건상 이 같은 보상과 대우로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금융그룹으로의 편입에 앞서 진행되는 이번 인력 구조조정으로 300~4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점포 효율화 작업과 본사 조직 슬림화도 진행한다”며 “이는 지점의 대형화 및 거점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사 영업조직의 생산성을 더욱 높이며, 지원 부서가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반성문’ 쓴 주진형 사장 (한화투자증권) “수수료 위한 장사로 증권업 위기 자초했다”

과다한 주식매매 유도 고백
고객중심 영업 지켜봐 달라



받아도 땀땀하게 변명하기가 공색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주 사장은 이러한 증권사의 행태가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증권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주 사장은 “고객을 위한 영업이 아니라 회사내 영업직원을 위한 영업 행태를 당연한 것처럼 해왔다”며 “증권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증권사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증권사가 고객보다 회사와 직원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국 고객의 신뢰를 잃고 증권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반성문을 썼다. 현재 직원 성과 위주의 영업방식을 탈피해 모든 중심을 고객에게 두겠다는 다짐이다. 주 사장은 15일 회사 홈페이지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표이사 편지’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게재했다. 주 사장은 이 글에서 증권사의 수수료 중심의 영업 형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증권사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갖은 주식매매를 유도하곤 했다”며 “심하게 말해 수수료만을 위한 장사를 했다고 비난

신뢰를 무너뜨리고 증권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주 사장은 “고객을 위한 영업이 아니라 회사내 영업직원을 위한 영업 행태를 당연한 것처럼 해왔다”며 “증권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증권사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사장은 회사의 영업방식을 과감하게 고객 관점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다한 주식 매매에 대한 실적 불인정 △매매수수료 기준으로 지급하던 개인성과급 폐지 △리서치센터의 운영 개편 △살아 상품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증시 상승탄력 이어갈까



전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던 코스피가 15일 혼조세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국인은 3일째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83포인트 오른 2012.66에 거래되고 있다. 15일 오전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노진환 기자 myfixer

아이엠투자증권 인수 6파전

메리츠·동부·골든브릿지 등 증권사 3곳 참여 흥행 성공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전에 메리츠증권 등 6개사가 경합을 벌인다. 당초 사모펀드(PEF)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 증권사 3곳이 인수전에 참여해 흥행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 컨소시엄은 14일 오후 예비입찰제안서(LOI)를 낸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골든브릿지증권과 사모펀드(PEF)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김재록 회장이 이끄는 인베스트스파트너스 등 총 6곳의 인수 후보자들에게 쇼트 리스트(인수적격후보) 선정 통보를 했다.
동부증권의 경우 모기업인 동부그룹이 현재 자구계획안을 이행 중인 가운데 매

각 가격이 1800억원에 달하는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전에 뛰어든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동부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부특수강과 당진항만 등 철강업을 포기하는 대신 증권과 보험 등 금융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IB부문에서 강점을 지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전 참여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잠재 매물로 꼽혔지만 이번 아이엠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해 덩치를 키우고 IB업무와 자기자본(P)업무에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아 기자 kakim@

광역수사대, 서울청 산하 세무서 전방위 수사

카드강 업자와 결탁 의혹
세무공무원들 소환 조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최근 카드강 업체와 결탁한 혐의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 등 사정기관에 따

면 광수대는 일선 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이 이른바 ‘카드강’ 업체로 불리는 위장가맹점과 결탁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관서는 서울국제청 산하 세무서 3~4개이며, 관련 직원도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4명은 카드강 업체

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수대는 이날 초 국세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관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 금전경찰서도 지난 2009년 9월 카드강 업자와 세무서 직원이 결탁해 위장가맹점 조기경보를 차단한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종로·용산·구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가 연루돼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Life 목요일 19~23면

커버스토리
대한민국은 ‘알바 공화국’

김기찬 교수 ▶ 조양호 회장 ▶ 8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Graphic NEWS

신용카드 보유량 꺾였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신용카드는 3.9장으로 2007년 3.7장 이래 처음으로 4장 미만으로 내려갔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2009년 4.4장, 2010년 4.7장, 2011년 4.9장으로 급속히 늘다가 2012년 4.6장으로 줄어든 바 있다. 1인당 신용카드 수가 3장대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07년(3.7장) 이후 6년 만이다. 박영리 기자 ellee@

1인당 신용카드 4장시대 막내러

연도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
2008년	4.0
2009년	4.4
2010년	4.7
2011년	4.9
2012년	4.6
2013년	3.9

취업자 10명 중 3명 과잉학력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력 및 직업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성과’

연령대	과잉학력비율
30대 미만	20.7%
30대	22.3%
40~54세	32.1%
55~65세	33.4%
전체	27.0%

중소 취업자 과잉학력 높아

취업자의 27%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과잉 학력 추세가 심하게 나타났다. 1~10인 규모 기업의 과잉 학력 비율은 31.6%에 달한 반면 1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은 16.8%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40~54세 32.1%, 55~65세 33.4%로 30대(22.3%)보다 높았다. 유혜은 기자 euna@

세계중소기업협의회회장에 선출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大·中企 상생, 생태적 자본주의 만들어야”



1955년 창립... 故 어운배 회장 이어 한국인으로 두번째
“도전·창조 기업가정신 잃지 않아야 글로벌 시장서 생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기적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생태적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기찬(사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 회장으로서 밝힌 포부다. 현재 ICSB 부회장 및 ICSB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014-2015회기 ICSB 회장에 선출됐다.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ICSB는 세계 최초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단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총 13개 국가위원회와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10년 전 고(故) 어운배 전 ICSB 회장 이후 김 교수가 두 번째 한국인 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오는 6월 말부터 차기 회장의

로서 1년 동안 활동하며, 루벤 아스쿠아 ICSB 회장의 뒤를 이어 본회장으로 1년, 이사회 의장으로 1년 등 총 3년 동안 ICSB의 선두에서 중책을 맡게 된다.

김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핵심은 한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하고 상생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 간 관계가 형성된다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이뤄진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웰스트리트 같은 이기적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인 ‘생태적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상생이 바탕이 된 환경에서만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ACSB) 회장도 맡고 있다. ICSB 내의 아시아 지역위원회인 ACSB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권 창립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중소기업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월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ICSB 회장 당선은 김 교수가 ACSB 회장직을 수행하며 아시아권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활동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뷰 내내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기업가정신은 ICSB가 매년 주요 화두로 다루고 있는 핵심 어젠다이기도 하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한마디로 도전과 창조”라며 “끊임 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해야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argo@

대동공업 김준식 회장 누나 회사 살리고 ‘원원’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이 IT업체 투아이시스를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했다. 투아이시스는 김준식 대동공업 회장의 누나 김은좌씨의 개인 회사다. 2년 전 두 사람이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투아이시스를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동공업은 투아이시스가 보유한 대동공업 주식 2.71%(64만3660주)를 추가해 최대주주 지분을 이 32.02%로 늘렸다.

대동공업은 지난 2012년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김은좌 투아이시스 대표와 김형철 대동

원으로 적자전환했고, 같은 기간 101억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58억원으로 42%나 급감했다. 부채비율은 619%로 치솟았고 차입금 의존도 역시 72.19%로 높아졌다. 투아이시스 관계자는 “계열분리되면서 지난해 그룹사 거래를 줄여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투아이시스는 대동공업 계열사로부터 3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1억2000만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대동공업에 다시 편입되면서 투아이시스는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 투아이시스가 보유한 지분은 김 회장 측의 지분으로 넘어오면서 두 사람은 ‘원원’ 결과를 얻은 셈이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투아이시스



김은좌씨 회사 투아이시스 특수관계인 편입 제작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 ‘구원’ 탈고 ‘연대’

김은좌씨가 관련 소송을 자진 취하했으나 2013년 박 대표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소액주주연대가 집중투표제를 요구하는 등 경영진과 주주 간의 대결 양상이 그려졌다.

대동공업이 이번에 투아이시스를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면서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잠정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에서는 김준식 대표와 누나가 서로 필요에 의해 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아이시스는 컴퓨터 관련 통신 설비공사 및 부동산임대업체로 김은좌씨가 지분 93.1%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2012년 흑자를 내다 2013년 영업손실 5억원, 순손실 8억

스가 영업이익 전혀 다른 대동공업에 편입된 것은 IT경기도 좋지 않고 실적도 악화돼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아이시스의 지분이 대동공업으로 넘어오면서 과거 겪었던 경영 갈등이 현재 일정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공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기계 업체로 LS엠트론, 동양물산기업 등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21.17%를 보유한 김준식 대표이며 아버지 김상수 회장 1.83%, 누나 김은좌 대표 1.62%, 형 김형철 대동공업 부회장 0.83%, 어머니 박경씨 1.23% 그리고 서울문고가 1.6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

취임 5개월 김창수號 1분기 성적표 ‘합격점’

〈삼성생명 사장〉

당기순익 4094억... 26% ↑
보장성 상품 판매 전략 주효
‘외형’보다 ‘질적’ 성장 강조

취임 5개월을 맞은 김창수(사진) 삼성생명 사장의 현직경영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기록했다.

특히 취임 후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김창수 사장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은 40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증가했다. 1분기 총자산은 196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증가는

지속적 보장성 상품의 판매 호조와 삼성 전자 등 보유주식의 배당금 증가에 따른 효과”라며 “수입보험료 감소는 지난해 초 세계개편 등의 일시적 효과로 즉시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의 판매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취임 후 김창수 사장은 줄곧 ‘외형’보다는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국내 보험시장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탓에 시장이 위축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3-4년간 외형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에 보험사의 매출을 의미하는 수입보험료(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 총액)가 크게 늘어났다. 수년간 2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던 수입보험료는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30조75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저금리 기조로 한화, 교보 등이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중단할 때도 삼성생명은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2012 회계연도에 무려 5조2400억원어치의 즉시연금을 판매했다.

이처럼 공격적 영업을 펼치면서 상품 포트폴리오 역시 수월한 저축성 보험으로 확대됐다. 보험회사 성장성의 핵심인 보장성 보험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김창수 사장은 삼성생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올해 보장성 보험 판매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이 취임한 이후 삼성생명이 보장성 보험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며 “영업력 강화는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김 사장이 올해 보장성 상품 판매 위주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aT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에 마술을 걸다

산지는 든든하게, 식탁은 안전하게
생산자의 보람과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행복한 세상
행복마술사 aT를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 농림수산식품 100억 매출 수료
- 중소식품외식기업 경쟁력 강화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생산 및 수급안정
- 유형전문인력 육성
- 회해공민정 운영

www.aT.or.kr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코스피 2050선까지”...추가 랠리 기대감

리서치센터장 장밋빛 전망

코스피 지수가 2010선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가 이어질 경우 지수가 2000선에 안착하며 205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00선 전후로 나타났던 펀드환매 움직임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중국 등 대외 환경 역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7.90포인트(1.41%) 오른 2010.8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10선에 올라선 것은 올해 처음

리서치센터장 코스피 진단



5월 지수 예상밴드	1950~2050	1950~2050	1920~2050	1950~2100	1950~2100	상단 2050
외국인 추가 매수 여부	신용국 중 한국 시장에 대한 펀드멘탈을 여전히 높게 평가	외국인 매수세 이어질 것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및 환율 하락추세 반전/속도 진정으로 외국인 매수세 지속 유망 기대	선진국 중심 경기 개선세로 외국인 매수세 이어질 것	수급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체로 매수세를 유지할 것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와 KOSPI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당분간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가 기대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 2000선 안착보다는 숏트르기에 나설 가능성 높아	중국회복, 기업이익 개선이 필요	중국회복, 기업이익 개선이 필요	한국 수출 확대와 견조한 기업이익에 따른 대형주 중심 투자에 나서야	원화 강세 및 중국의 약한 경제 여건까지 고려하면 금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어	중국 경기회복 현실화 여부 지켜봐야

美 등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외국인 투자심리 살아나

당분간 추가매수 이어질 듯

쏟아지는 펀드환매 물량이 관건

불확실한 대외환경도 부담

이다. 하루 상승폭도 지난해 11월 15일(1.95%)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등 주요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주식전략팀 이사는 “ECB 부양책 시사에 따른 유로화 약세 및 달러화 강세전

환과 한국 당국 1000원선 사수를 위한 개입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스탠스가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크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역시 살아나고 있다”며 “여기에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신용국 중 한국 시장의 펀드멘탈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들은 하루 동안 3400억원가량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BUY 코리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은성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와 KOSPI 밸류에이션 매력

으로 당분간 외국인의 추세적 매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2000선 안착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던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이 주요 수급 주체로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나 2000선 이상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지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0선 돌파에 따른 펀드 환매 확대가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2000선 돌파시에도 환매물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대규모 환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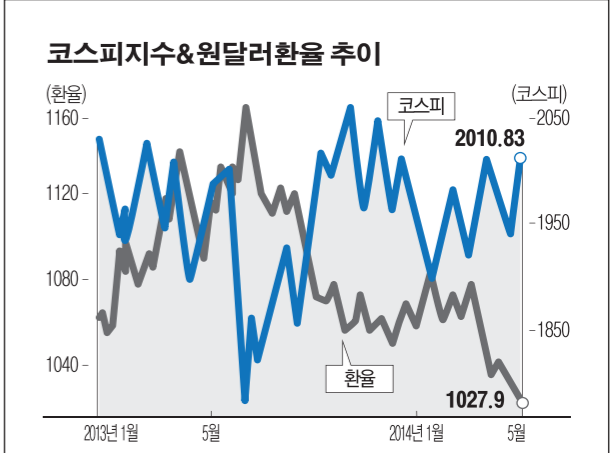
또한 아직 상승세를 뒷받침할 펀드멘탈이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중국 경기 회

복 여부 등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의 약한 경제 여건까지 고려하면 금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여기에 원화 강세 요인까지 작용하면 외국인 수급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센터장 역시 “수급상황에 대한 불안감 등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2%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2000선 안착보다는 숏트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은성민은 “5월 중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을 인하할 경우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 정책 기대가 현실화될 경우 지수는 2050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주가·환율 ‘脫동조화’

글로벌 증시와 동조 움직임 한은 “환율 하락 속도 관건”

코스피지수가 환율의 하락세 부담을 떨쳐내며 경기 개선 기대감에 기인한 글로벌 증시의 랠리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가와 환율은 ‘탈동조화(Decoupling)’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국내의 자금이 유입되며 부동산 시장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환율 하락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일반화된 공식’보다는 ‘미국증시와 한국증시의 동조화(Coupling) 현상’에 무게가 실린다. 환율의 영향력이 추가 상승세에 밀려나며 힘을 잃지 못하는 모습이다.

5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20원까지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1000원선 붕괴 가능성마저 제기하기도 했다.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위축된 투자심리로 나타나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늘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하지만 환율의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세가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폭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경제의 펀드멘탈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하락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율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로 번지고 있지만 경기 개선세가 진행되면서 과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환율 하락 국면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고, 환율 상승시에도 외국인이 매도에 나설 수 있다”며 환율 하락이 주식시장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주가와 환율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공존하고 있어 “환율 하락과 외국인 매도세의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990년 이후, 환율 하락은 주가 상승, 환율 상승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며 “원화 강세 국면에서 기업 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판단했다. “실물경기 가 호전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는 측면이 코스피지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청 기자 jcha@

루비니 “美 증시 수년간 오를 것”

‘닥터 뚝→닥터 붐’ 변신...골드만삭스도 낙관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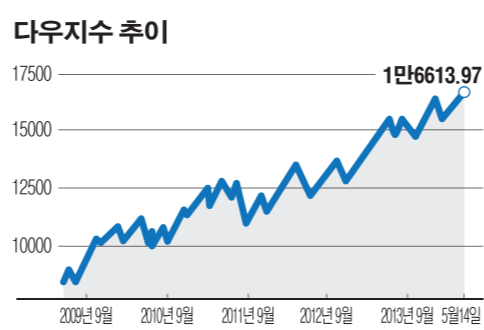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행진 이후 14일(현지시간) 조정을 겪었지만 전문가들의 낙관론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사진) 뉴욕대 교수는 “앞으로 나를 ‘닥터 붐(Dr. Boom)’이라 불러도 좋다”며 미국증시가 향후 수년에 걸쳐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는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SALT(헤지펀드드론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위험들이 희미해졌 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경제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폈으며 주식시장 역시 한동안 강세를 이



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니는 미국 경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작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적절히 대처했고 미국의 재정위기가 역시 마무리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양적완화를 포함해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이날 루비니의 경제 평가는 3-4개월 전과 비교하면 180도 바뀐 것이다. 루비니는 올초



지난해 미국증시가 30% 급등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과열을 경고했으며 경제가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춘은 올 들어 미국증시가 연초 대비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루비니의 이런 우려도 진정될 것으로 풀이했다. 루비니는 나아가 향후 수년에 걸쳐 주식을 비롯해 다른 투자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이 수년 동안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

며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거품은 오지 않았다고 루비니는 진단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의견을 내었다. 루비니는 유럽이 1년 사이에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작동하고 있다고 루비니는 평가했다.

윌라 파텔 골드만삭스에셋매니지먼트인터내셔널(GSAM) 최고경영자(CEO) 역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파텔 CEO는 금융위기에 따른 여파가 아직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전체 증시는 추가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먼저 여객선 침몰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객선 사고가 잘 수습되어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다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각오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후보자와 어느 정당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안전, 환경, 교육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여 표로써 그 선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개표를 포함한 선거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조직,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 여론조사의 왜곡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금품수수나 비방·흑색선전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유권자 고령화·세월호 民心 ‘양대 변수’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등록

차지지을 하락 野 반영 안돼
40대 ‘무당층’ 참여 승패 좌우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사전 투표는 30~31일 실시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후보자별 확률을 비롯해 전과기록·재산·병역·제납 사항 등을 게재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후보 등록 기본접수 서류에 포함되면서 누가 ‘철세 정치인’인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들은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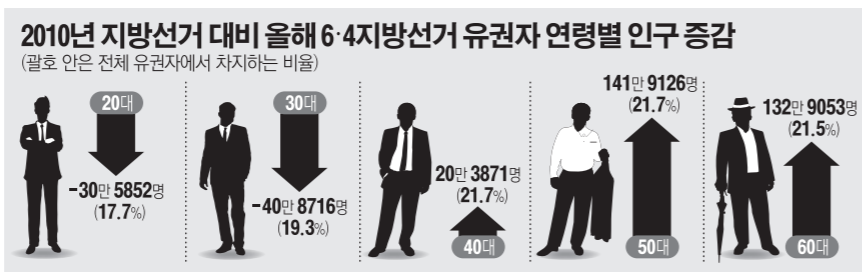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과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 시도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 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실시된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 지하철 1호선 병점차량기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동차에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참여 문구와 선관위 캐릭터를 래핑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자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과 ‘세월호 민심’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과 선거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세월호 사고로 선거에 대한 국민

고령화로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투표율이 오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이,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여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연령별 인구비가 크게 달라지면서 이 공식은 점차 깨져 가는 추세다.

선거의 또 다른 중대 변수는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와 비슷한 40대 민심의 방향이다.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40대들이 20~30대와 함께 ‘무당층’으로 대거 몰렸다. 과연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지, 투표에 나설 경우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 가지 특이점은 급속한

김익중 기자 zerg@

책임만 통감, 상황은 모르쇠 “강병규 장관 당장 사표 내라”

국회 안행위 ‘세월호’ 보고 與野 구분없이 비판 쏟아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여야 구분 없이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 나선 정부를 상대로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안행위원들은 출석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을 지적하며 “당장 사표를 내라”고 호통을 쳤고, 일부 의원들은 질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장관이 “뉴스를 본 (장관) 비서실장이 9시 25분 전화로 보고했다”면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니 해경청장도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중진 이재오 의원은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공직자의 정신이 부패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부패와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정원 의원은 “강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 능력이 없다”면서 “최종이라고 말하란 말이야. 잘못했다고 얘기해, 내가 죄인이라”고 비판한 뒤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 119 상황실과 목포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질문 당시

‘과잉의전’으로 초기 구조활동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당시 소방 상황실은 배 안에 있는 400명에 대한 구조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 앞에 구조된 사람들을 보여줘야 하는 의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광주소방 헬기를 타고 온 전남 소방본부장이 10시 37분 사고 현장 도착을 앞둔 3분 전인 10시 34분부터 팽목항에 간부들이 온다는 것을 해경에 계속 통보하며 구조된 사람들의 팽목항 이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시인했지만, 주요 사안마다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안행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15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한 비윤리적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난보도지침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16일 개최 예정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사고 관련당국과 산하 기관 유착관계, 안전불감증, 안이한 사고 전과 과정과 초동대처 실패 및 구조 실패 등의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이 소환될 예정이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與 ‘정무위’ 김재경·정우택 경합... 野 ‘국토위’ 박기춘 물망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윤곽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이 압축돼 가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년 중진위원이 맡게 되며, 여야 의석 수에 따라 새누리당 10개, 새정치민주연합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새누리당 몫으로 우선 금융당국을 담당

하는 정무위는 김재경, 정우택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장은 정희수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맡는 국토교통위원장은 박기춘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소관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지리하고는 김동철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전반기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로 찍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새누리당 진영, 홍문종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후보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운영위	이완구(새)-확정	윤리특위	여성규(새)
정무위	김재경, 정우택(새)	법사위	이상민, 박지원(민)
기재위	정희수(새)	교문위	설훈, 박주선(민)
미방위	진영, 홍문종(새)	농해수위	김우남(민)
외통위	유기춘, 이재오(새)	보건위	양승조, 김춘진(민)
국방위	황진하(새)	한노위	강기정, 조정성(민)
안행위	김재경, 정우택(새)	국토위	박기춘(민)
정보위	원유철(새)	여성위	김영주, 유승희(민)
예결특위	김광림, 정윤석(새)		

환경노동위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정성의

원도 입에 오르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부채·방만’ 공공기관장 연봉 2억 넘어

18곳 4.8% 삭감 불구 전체 평균의 1.5배 수준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연봉이 지난해 삭감됐지만 여전히 2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지난해 수령한 임금 총액은 39억9300만원으로 1년 전 41억9400만원보다 4.8% 감소했다.

지나해 304개 전체 공공기관장의 임금이 0.8% 오르는 동안 이들은 삭감이라는 뒷사람을 맞은 것이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 기관장의 임금 총액은 2009년 28억 3500만원, 2010년 37억8800만원, 2011년 40억3700만원 등으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방만경영 20개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임금 수령액도 50억3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이들 20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5200만원으로 역시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임금은 2012년 2억1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52.1%나 급감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임금은 1억9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한국수력원

자력 사장 임금은 2억6000만원에서 1억2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박상영 기자 sypark@

1시간 속성 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미리 알아두세요!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B, J, 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 싸움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정부, 빚더미 공공기관 출자금 '112조'

재정 의존도 높아 부담 가중 재무악화면 내수시장도 위축 14개 기관 지분을 80% 이상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기관분류	정부출자	
	출자금	지분율
공기업(2)	873,845억원	87.4%
준정부기관(5)	29,859억원	78.5%
기타 공공기관(6)	222,144억원	80.7%
총 32개 기관	1,125,848억원	

정부가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에 100조원 넘게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더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 나라살림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대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재정 악화와 내수시장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정부는 SOC·에너지·금융 분야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총 32개

공공기관에 112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지분율(출자금/납입 자본금)은 공기업(21곳) 87.4%, 준정부기관(5곳) 78.5%, 기타공공기관(6곳) 80.7% 등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부채 과다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38개 기관과 중점적 기관 중 방만경영 점검기관으로 지목된 8개 기관 중 정부

지분을 80% 이상인 공공기관은 14곳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만 93조5700억원이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출자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나 복리후생비 부담이 높으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익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 반회계 소관 출자기관 중 이익이 발생한 기관 19곳에서 4868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603억원, 2012년 정부 배당수입 실적인 6048억원에 비해서도 118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은 2012년 5조1000억원에서 작년 4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정부 지분을 80% 이상의 부채과다 기관 중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2012년 기

준 당기순이익은 93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LH, 철도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부채비율 역시 466%, 244%, 167%, 123%에 달했으며 철도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적자는 2조8200억원, 9040억원이었다.

정부는 부채과다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을 2013년 237%에서 2017년 20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유자산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어려움 등으로 부채감축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71만원가량 줄여나가겠다는 계획 역시 노조의 반발에 힘로가 예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정부는 빚더미 공공기관에 대해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나랏돈을 계속 쏟아부을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자기부상열차 7월부터 운행

14일 도시철도차량시험인증센터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모습. 국내에서 처음 운행되는 이 자기부상열차는 2달간의 시운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용유역까지 6.1 km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한국기계연구원

KDI “소형주택보다 중형 공급 늘려야”

1-2인 가구의 증가로 중형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소형주택 수요가 늘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소가족화 추세에 발맞춰 소형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중형주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만 KDI 겸임연구원 조만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구성원은 대부분 노년층으로, 중형주택을 선호한다”며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 1~2인 가구도 결혼과 출산을 한 뒤에는 중형주택으로 이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령대와 가구유형별 주택 규모 분포를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2035년까지 극소형(30㎡ 이하), 소형(30~50㎡) 수요는 소폭 감소하고, 중소형(50~70㎡), 중형(70~100㎡), 중대형(100~130㎡)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대 말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형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고 이후 공급을 늘렸다. 그 결과 2009년 1688호였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2년 12만3949호로 급증했지만 전세가격은 안정되지 않았다. 소형주택의 공실률도 기대와 달리 높아졌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국부 1경630조... 토지 자산이 절반 넘어

한은·통계청 2012년 기준 집계... 국민 1인당 순자산 2억1259억

처음으로 집계된 우리나라의 국부는 1경 원이 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보다 77배 높고 국민 1인당으로는 2억1259억원이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실물자산 중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 국부의 부동산 풀립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가계의 경우에는 전체 보유자산 중 토지 주택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미국의 갑절인 66%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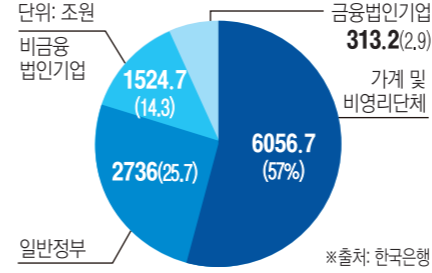
를 발표, 우리나라 국부 현황 최초로 공개했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현재 1경630조 6000억원으로 GDP의 77배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순자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토지 자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경향이 부동산 버블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1인당 순자산은 평균 2억1259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6056조7000억원(57.0%), 일반정부 2736조2577억원(25.7%), 금융법인기업 1524조7000억원(14.3%), 금융법외기업 313조2000억원(2.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보유자산 중 토지 주택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등에 비해 크게 높아 눈에 띄었다. 가계 자산이 부동산 위주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은 낮음에 따라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고 주거비용만 높일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주체별 국민순자산 구성 현황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 전체 국부에서 실물자산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경73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토지가 5604조8000억원(52.2%)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밖에 건설자산 3852조5000억원(35.9%), 설비자산 660조원(6.2%), 지식재산자산 252조7000억원(2.4%), 재고자산 314조2000억원(2.9%) 등으로 조사됐다. 이진영 기자 mint@

美·日 TPP 타결 유력 韓 ‘참여 표명’ 초읽기

결립될 ‘일본 쌀’ 미국서 양보 실제 협상은 하반기에 가능

미국과 일본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원적적 타결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의 TPP 참여 표명 또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당시 불협화음을 내비쳤던 한일 TPP 협상은 크게 급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일본의 5대 품목 중 미국이 쌀을 양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마일 양국은 현재 38.5%인 쇠고기 관세를 올 한 자릿수로 낮추고 돼지고기는 수입 가격이 낮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차액 관세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를 가지고 미국, 일본 등 12개 TPP 회원국은 12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자동차 등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 품목의 관세율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PP 타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마일간 TPP 협상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19일 각료회의에선 TPP 협상에 대한 원적적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TPP 회원국과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던 우리 정부도 TPP 참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TPP의 원적적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가 3월 말부터 2차례나 미뤄온 ‘TPP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놓아 여론을 조성한 뒤 TPP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구기관 등이 발표한 TPP 영향 분석 자료 등이 긍정적이고 미국이 일본의 ‘쌀’을 양보한 만큼 농림수산업에 대한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해도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 참여는 빨라야 하반기 말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회원국들이 TPP 협상을 최종 타결할 경우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반영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희준 기자 h9913@

직장인 여러분, 연금 공부합시다

제2장, 내 연금과 세금 혜택

장기투자일수록 세금은 중요합니다. 단 0.1%의 차이라도 해가 쌓일수록 큰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10년 20년 계속 운용됩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좋은 펀드를 골라 분산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세금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펀드라도, 그냥 투자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세율15.4% 연금으로 투자하면 연금수령액에

대해 세율5.5%! 더구나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원금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제혜택 받으면서, 미래에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를 내 연금에! 구글, 스타벅스, 프라다, 나이키, 비자카드,

폭스바겐 등 세계 대표기업들에 투자하는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는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초우량 기업들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펀드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십시오.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 적용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6.46% BM 11.83% KOSPI 2.70%

1년 수익률
32.18% BM 20.68% KOSPI -1.28%

2년 수익률
37.00% BM 34.47% KOSPI -1.25%

출처: 제로인 / 세전기준, 기준일: 2014.2.28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수익률은 일반형 및 퇴직연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설정일: 2011.11.02 ■ 순자산: 1,939억원(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펀드: 9,915억원) ■ BM자수: MSCI AC World Index ■ 판매방법: 제45호정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88호정입일에 판매대금 지급 (1) 17시 경과 후 판매 신청시 적용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 판매수수료: 없음 ■ 총보수: 1.77% (판매0.9%, 운용0.66%, 신탁0.06, 사무0.03)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1578호 (2014.03.14 ~ 2014.05.27)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 및 과세기준은 향후 변동 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민원 불량 금융사에 '빨간 딱지'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최하등급 17개사 3000여점포 부착 국민·농협·SC은행 등...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것" 반발 5년 연속 최하위 기록한 생보·손보사 현장 점검 진행키로



량 기관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나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등급결과를 배치를 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엔 확실하게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원칙을 적용했다"며 "5등급을 받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은 이번 민원 발생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ING생명, PCA생명, 알리안츠생명과 손보사인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안철우 기자 acw@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17개 금융회사 3000여개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최하등급(5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민원평가 등급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된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구분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민원평가 등급 공지하도록 지도했다.

영업점 입구에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는 지난 12일부터 게시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등급 판정을 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비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진에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점포수가 많은 국민은행(1130곳), 농협은행(1187곳), 한국SC은행(326곳), 롯데손보(100여곳), 동양증권(88곳) 등은 마치 신용불

"제 대출금리 좀 내려주세요"

인하요구권 신청 1년새 4배 급증 94.3% 혜택... 평균 0.6%P 떨어져

최근 1년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한 금융소비자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94.3%는 인하 혜택을 받았고 인하 수준은 평균 0.6%P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내놓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개선 방안을 따르면 2013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은행에 접수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9만286건에 금액으로 4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들은 94.3%인 8만5178건, 42조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만8572건(41.3%), 37조원(73.1%)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을 연 2520억원으로 추정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2만7306건으로 전체 인하건수의 55.3%를 차지했고 담보대출은 2만2093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인하금액은 각각 1조1000억원과 4조3000억원이었다.

주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2013년 4월~2014년 3월 중)

은행	실적	인하대상 대출금액
기업	2만16923건	11조8504억원
하나	2만1307건	8조7909억원
신한	1만3476건	1조9824억원
농협	9027건	1조10억원
외환	4849건	13조5070억원
국민	1789건	4161억원
우리	835건	4967억원

※ 출처 : 금융감독원

승인 사유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1만4214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 6423건(13.0%) 소

등증가 5610건(11.4%) 등의 순서였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 1만6943건(47.4%), 재무상태개선 7467건(20.9%), 회사채등급상승 94건(0.2%), 특허취득 40건(0.1%) 등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가계주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규 및 전산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은행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없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수단도 확대된다. SMS·E-mail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대출통장에도 인자해 제공하도록 했다.

신대현 기자 holjjak@



NH농협은행·방통대 산·학 협력 MOU

NH농협은행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4일 서울 중구로 동송동에서 김주하 은행장과 조남철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고졸재직자 대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학위과정 등을 공동개발하고, 재직자 교육 관련 콘텐츠 공동이용, 상호 인적교류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오른쪽)이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DB생명 예비입찰 흥행 실패

실적 하락세... 시너지 효과 없어 국내 금융지주사·대기업 무관심

KDB생명 예비입찰에 외국계 자본과 국내 사모펀드(PEF)들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산업은행은 전일 예비입찰 서류를 마감한 결과 두 곳 이상의 복수 참가자가 서류를 접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곳 이상의 복수 참가자가 있다. 6월 말 본입찰을 추진하며 진행상황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당초 3월 말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LIG손해보험의 매각과 일정이 겹치면서 관심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국내 금융지주사나 대기업들은 KDB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매각작업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KDB생명의 인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시너지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계열사로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KDB생명의 경우 설계사 조직(2월 기준 4753명)이나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두드러지게 실적이 좋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금융지주에서는 인수 시 계열 생보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함인데 KDB생명에겐 이런 인수요건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KDB생명의 실적 하락세도 흥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DB생명은 2013회계연도(4-12월) 기준 월납초회 수입보험료 1조9890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사업비자와 이자율차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법인세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35억원에 머물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B생명은 매각 자체가 이슈가 된 적이 없다"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인수 시 차별성을 가질만한 요인들이 없어 업계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AIA생명, 홍콩본사에 또 250억 송금

5개월간 550억... 지점형태 고수 눈총

AIA생명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5개월만에 홍콩본사에 250억원을 송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지난 6월 홍콩본사에 영업기금을 목적으로 25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835억원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IA생명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홍콩본사에 300억원을 송금한 바 있다. 즉 5개월만에 또 다시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한 것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송금한 부분은 2012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당시에 송금한 일자가 12월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AIA생명이 이익금을 송금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법인전환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법인이 이익금을 송금하려면 배당금 형태를 취해야 하지만 지점은 영업기금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온 AIA생명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총 25개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지점 형태다. 이재현 기자 nts0118@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으세요? 보험으로 대비해놓고 싶으세요?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가 많아도 아픈 적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없이 가입되니까 지금 편하게 전화하세요!

라이나 OK실버보험 (갱신형)
무배당

목적질문 및 의료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입니다.

- ✓ 50세~81세 분이라면 나이, 건강, 직업 상관없이 가입!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보장 제외, 가입 이후 발생한 재해 사망은 즉시 보장
- ✓ 질병 재해 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보장!
재해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지급

24시간 무료 상담 문의 ☎ 080-026-3030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됩니다. (갱신가능 최고 나이 81세).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합니다. 단, 재해 원인 시에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포스코 '동부패키지' 인수 내달 초 판가름

실사 예상보다 길어져 이달 말까지 진행키로

포스코 "인수 여부, 실사 끝나봐야 결정 가능"

포스코의 동부인전스틸(동부제철 이전 공장)과 동부발전당진 인수 여부가 6월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15일 동부제철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이번 주까지 실사를 마쳐줬으면 5월 연휴로 인해 종료 시점이 1-2주 연장될 수 있다"며 "가격 협상 기간을 감안하면 최종 클로징은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관계자는 "동부그룹 자산의 실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해 봐야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

을 것"이라며 "아직 인수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할 경우 포스코는 이달 말까지 실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동부그룹의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가격 협상에 착수해 내달 초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동부자산 인수 여부의 관건은 역시 가격이다. 산은과 동부그룹은 최대한 값을 받고 동부 패키지를 매각할 계획이지만, 포스코는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부그룹이 내놓은 자산 가격은 동부인전스틸이 1조~1조2000억원, 동부발전당진은 4000억~50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코가 인수를 결정하면 매각 가격의 70~80%는 산은이 재무적투자자(FI)를 모아 부담하고 나머지는 포스코가 매입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최종 인수금액은 4000억~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동부패키지 인수에 대해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동부인전스틸의 인수가 컬러강판 시장의 구조조정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동부발

전당진 인수를 통해서도 에너지사업을 강화할 수 있다.

동부인전스틸과 동부발전당진의 매각이 6월 초 결정되면 동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와 자산 매각을 통해 2015년까지 3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동부인전스틸과 동부발전당진의 매각은 자금 마련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다.

동부그룹은 이 두 자산이 매각되면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특수강, 동부제철당진항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한 6900억원을 합하면 자구안 발표만 1년 만에 50% 이상의 계획을 달성하는 셈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마음연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보상"

삼성-반올림 '교섭주체 선정' 이전 최종 협상 타결까지 시간 걸릴 듯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백혈병 논란이 7년여 만에 해결될 조짐이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의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서초사옥 브리핑실에서 "백혈병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을 이날 오후 4시경 발표했다.

반올림은 보상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해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해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발표로 극적인 돌파구는 만들어졌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몇가지 난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심상정 의원 측이 피해자 유가족, 반올림 공동 명의로 제안한 제3의 중재 기구를 교섭 주체로 설치하는데 동의한 반면, 반올림 측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올림은 심상정 의원 측과 제3의 중재 기구 설치하는데 합의하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는 사태 해결을 낙관하고 있다. 삼성전자 대표가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등 요구 조건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만큼,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7년 동안 이끌어왔던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조건없이 마음을 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이해 당사자들도 협상 주도권을 위한 확실 선행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ly@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포함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5만9614원 인상과 정년보장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1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2014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요구안에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등을 담았다. 현재 정년은 '58+1+1(58세 이후 2년 연장)'이지만 임금과 건강 등 일부 조건이 따른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모두 상급단체 급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별도 요구안으로는 △선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שה고자 복지 손해배상 가입료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담았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기름 넣고 월드컵 티켓 받아주세요" 에쓰오일 '구도일 패밀리' 사은행사

에쓰오일(S-Oil)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주유소, 충전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구도일 패밀리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5만원(충전소 3만원) 이상 주유 후 대금 결제 시 보너스카드를 제시하면 자동 응모되며, 영수증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엔 자동차(2명), 46인치 3D LED TV(20명), 차량용 블랙박스(50명) 등의 경품을 63명에게 제공한다. 사진제공 에쓰오일

현대차, 美서 제조결합 관련 2470억원 징벌배상 판결

미국 몬태나연방지방법원 레이카운티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과 관련해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1년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부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이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용된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앞서 다른 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해 법무팀과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n@

글로벌 태양광 쟁쟁한데... 내수는 '어두침침'

세계 태양광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은 내수 시장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15일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과 비교할 때 △내수 수요 △생산 규모 △가격 경쟁력 등 3가지 요소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0.4GW(기가와트)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120GW로 국내보다 30배 이상의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태양광 설치량과 비교해도 0.85%에 불과해 내수시장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태양광 모듈 생산량도 한국은 2GW로 중국의 33GW와 비교할 때 불과 6% 수준에 그쳤다. 모듈 생

산단가 역시 1W 당 한국이 0.8달러, 중국이 0.6달러로 조사돼, 가격 경쟁력에서도 20~30% 가량 떨어졌다. 다만, 기술력도 한국과 중국 모두 선진국 대비 80~90% 선으로 대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내수 시장의 협소함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가격면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수해를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수출액은 2013년 45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2020년까지 약 350GW가 추가로 설치돼,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설치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이 예고됐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해외사업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해답"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생산 규모·가격 경쟁력 등서 중국에 뒤처져 "내수한계 극복 위해 해외시장 개척 나서야"



MCM, 도쿄 긴자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MCM이 일본 도쿄 최고의 명품 거리로 손꼽히는 긴자의 중심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MCM의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는 300㎡(약 90여평)의 대형 매장으로서 일본에서 인기 있는 모노그램 헤리티지 제품 및 S/S(봄·여름) 컬렉션 등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MCM은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모던하고 세련된 현대의 건축물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매장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원형 미디어 스크린과 함께 연출된 독특한 입구가 특징이며,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을 위해 애견을 동반한 쇼핑객을 위한 입구를 따로 마련했다.

출입구에 들어서 펼쳐지는 첫 번째 공간에서는 MCM 고유의 헤리티지와 골드 라인을 중심으로 한 프리리엄 섹션 및 여성 라인인, 두 번째 공간에서는 유니섹스 라인과 남성 라인인 소개된다. 이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는 중심에는 MCM에서 가

장 인기 있는 베스트 셀러 라인인 전시됐고, VIP만을 위한 맞춤 제작 서비스 '비스포크'를 제공하는 VIP룸도 있다.

MCM 관계자는 "MCM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는 아시아 럭셔리 시장의 큰 축이자 세계 명품 시장을 이끄는 중심부에 자리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MCM의 글로벌 럭셔리 시장 확장에 있어서 든든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에 기자 isa@

조양호, 한진해운 글로벌 경영 시동

(한진그룹 회장)

세계 4위 선사 에버그린 방문 협력 논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에 나섰다.

한진해운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이 대만에 위치한 세계 4위 선사 에버그린(長榮海運)그룹 본사를 방문, 장용파(張榮發) 회장을 만나 양사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창용과 회장과 최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해운업황의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 동맹체인 'P3(머스크-MSC-CMA-CGM)'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또 아시아 선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사 및 양사가 속한 해운 동맹체인 CKYHE 얼라이언스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함께 논의했다.

양사가 속해 있는 CKYHE 얼라이언스는 기존 한국의 한진해운, 중국의 코스코(COSCO), 일본의 케이라인(K-Line), 대만의 양밍(YANG MING) 4개사에, 지난 3월 1일부로 대만의 에버그린이 합세해 아시아 대표 해운 동맹체로 자리매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창용파 에버그린 회장이 양사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 한진해운

CKYHE 얼라이언스는 지중해를 포함한 아시아-유럽 항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대형선 1만3000TEU(ITUE)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포함한 총 109척의 선박을 투입, 기존 7개 노선에서 총 10개 노선(북유럽노선 6개, 지중해노선 4개)으로 노선 운항 횟수를 늘렸다. 아울러 북유럽 항로 79개, 지중해 항로 63개 기항지를 운항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한경연 "유럽선 피라미드·상호출자 규제 없다"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위험에 맞서기 위해 우리나라도 피라미드 출자나 상호출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자배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럽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피라미드 출자와 상호출자 형태의 기업 소유자배구조를 형성해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6개 선진국의 기업 소유자배구조 등을 분석,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 현재의 기업 지배소유구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은행과의 상호출자관계와 피라미드 출자관계, 스웨덴은 다

중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구조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기업간 상호주식 보유와 임원 겸임을 특징으로 하는 특유의 그룹형태가 발전해왔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국가에서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 상호출자와 관련해 별다른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지주회사와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의 기업집단체계가 형성되면서, 법제도적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출자구조 형태가 허용되는 등 법적 제약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의 주요 기업집단들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과 산업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e-리포트

기지가 커는 전기자전거 시장

하반기 스마트워치 대전

‘100만원 이하’... 2~3년 내 대중화

오르막길·먼거리도 거침없는 주행
현재 100만원 중후반대 가격 형성
한라·삼천리 등 국내 업체 10곳 경쟁
기아차 'KEB' 유럽시장 출시 예정



대로 4년 새 2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시장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의 전기자전거 시장은 2009년부터 연 평균 11.3%씩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장 규모는 700억 위안(약 11조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시장의 문이 열리자 국내 대기업도 속속 뛰어들고 있다. 한라마이스터는 2012년 10월 만도풋루스를 처음으로 선보인 뒤 지난해 국내외에서 1000여대를 판매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많은 7000여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4 제네바모터쇼'에서 전기자전거 'KEB(Kia Electric Bicycle)'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아차는 KEB을 올 하반기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다. KEB의 국내 출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성장 중인 것을 고려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KEB을 조만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병동 브이엠 대표는 "전기자전거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일반자전거 생산량을

아웃면서 미래의 자전거로 정착되고 있다"며 "배터리나 모터의 용량이 작고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전기 계통의 동력시스템이 고장난 경우에도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게 주행이 가능해 보급이 용이하고 실용성도 높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의 대중화 시점을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2~3년 내 경쟁력있는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LG전자 다음달 'G워치' 공개
삼성, 안드로이드 '기어2' 공개 유력
모토로라·애플도 출시 앞뒤



LG전자 스마트워치 'G워치' 사진제공 LG전자

올 하반기 본격적인 스마트워치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소니가 지난해 가장 먼저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며 시장 선전에 나선 가운데 LG전자, 모토로라, 애플 등 국내외 글로벌 전자업체들이 하반기 스마트워치 시장에 일제히 출시표를 던진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다음달 25~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구글 개발자대회(I/O)에서 구글과 함께 개발한 'G워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글의 웨어러블 기기 전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탑재한 G워치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호환이 가능하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4월 미국 특허상표청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시계를 명칭한 'W Watch'라는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지난 3월 스마트워치 출시를 공식 발표한 모토로라도 올 여름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웨어를 탑재한 스마트워치 '모토360' 판매를 시작한다.

애플도 올 3분기 가정 '아이워치(iWatch)' 출시를 통해 스마트워치 시장 선전에 나설 것이 유력하

다. 애플은 지난해 러시아, 일본 등에서 아이워치 상표를 출원했고, 현재 아이워치 초도물량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독자 OS인 타이젠과 안드로이드 웨어,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스마트워치 시장 선두 군히기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갤럭시 기어의 후속작인 '삼성 기어2', '기어2 네오', '기어 핏' 등 스마트워치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삼성전자의 독자 OS인 타이젠이 탑재됐다. 타이젠은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일본 NTT도코모 등 주도의 타이젠 연합이 개발한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IFA 2014에서 안드로이드 웨어를 탑재한 갤럭시 기어2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각각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2를 출시한 소니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등과 연결돼 이메일 및 일상생활 기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밴드 'SWR10'를 국내 발표했다. 김지영 기자 gujy@



LG전자, UHD 축구 게임리그 우승자에 'LG UHD TV' 증정
LG전자는 이달 17일부터 UHD(초고해상도) 화질로 즐기는 '위닝일레븐 2014' 축구리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UHD 축구 게임리그 우승자에게는 'LG UHD TV', 준우승자에게는 울트라PC '그림'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LG전자

중국 대륙서 맞붙은 '보일러 맞수'

경동나비엔·귀뚜라미, 中 최대 냉난방 전시회 참가 등 홍보전 치열

국내 보일러 '맞수'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이번엔 중국시장 선점을 두고 열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양사 모두 중국 최대 규모 냉난방 전시회에 참가하고 제품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현지 유통업자들의 접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규모의 '2014 국제 위생 및 냉난방 공조 전시회(ISH China&CIHE 2014)'에 참가했다. 최적의 생활에너지 솔루션을 콘셉트로 부스를 차린 경동나비엔은 주력인 콘덴싱 보일러와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인 스텔링엔진 m-CHP, 캐스캐이드 시스템(가정용 콘덴싱 보일러와 온수기를 병렬 연결해 중대형 보일러를 대체하는 기술) 등을 소개했다. 경동나비엔은 중국 유통업자들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이같은 현지 전시회 참여는 물론, 다양한 제품 설명회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현지 대형 유통업자 300명을 초청해 제품 설명회를 가졌고, 지난 3월에도 베이징, 상하이법원에서 초청 간담회를 연 바 있다. 경동나비엔이 올해 현지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는 벌써 4번째다. 김정유 기자 thec98@

귀뚜라미 역시 중국에서 열린 'ISH China&CIHE 2014'에 참여해 경동나비엔과 기술력 경쟁에 나섰다. 귀뚜라미는 주력 제품인 '거꾸로 콘덴싱 보일러'와 '거꾸로 하이핀 보일러'의 기술력을 집중 홍보해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거꾸로 콘덴싱 보일러는 기존 제품이 갖고 있는 1차·2차 열교환기 없이 단 하나의 열교환기로 콘덴싱 기술을 구현한 제품이다. 특히 풍부한 온수량을 제공하는 저당식 온수 열교환 탱크 기술력은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귀뚜라미는 고효율 콘덴싱 기름보일러, 거꾸로 타는 화목보일러, 친환경 펠릿보일러, 온수매트 등을 소개했다. 이 같이 국내 1, 2위 보일러업체인 양사가 경쟁적으로 중국 공략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현지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성 때문이다. 한계가 있는 내수 시장에 비해 중국은 아직 보일러 보급률이 낮아 성장의 발판으로 삼기에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현재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과 현지 업체 등 약 200개 이상 제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Performance
- Concert
- Exhibition
- Launch show
- Convention
- Seminar and
- Wedding

PATIO 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연주회 및 공연

투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우량 프로젝트 선별수주... “올해 10조 달성” 힘찬 행보



GS건설은 올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주단계에서부터 수익성이 담보된 우량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한편 설계와 수행, 공사 등 전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 원가율을 지키는 등 해외사업 수행경쟁력의 근본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및 공중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적 거점인 중동과 아시아 지역은 주력사업 중심으로 양질의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 처녀 진출한 카자흐스탄 등 CIS지역 외에도 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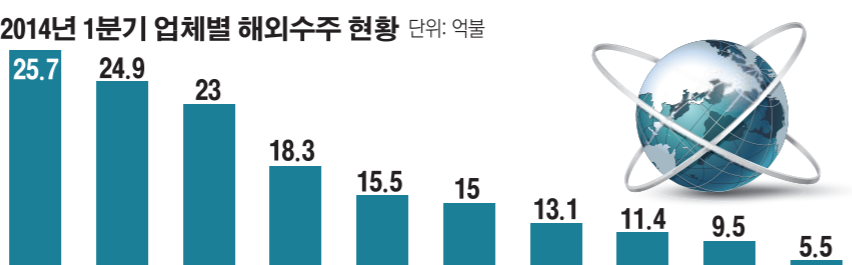
GS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업체와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해외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과 다양한 협업 기회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와 수행을 통해 건설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수행·공사 전분야 원가율 지켜가며 ‘수행경쟁력’ 강화
올들어 1조6천억 쿠웨이트 클린퓨얼·6천억 싱가포르 병원
정유·가스 플랜트부터 토건까지 중동·아시아서 견실한 성장



GS건설은 전략적 거점인 중동과 아시아 지역은 주력사업 중심으로 양질의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 처녀 진출한 카자흐스탄 등 CIS지역 외에도 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싱가포르 지하철 건설 공사현장(왼쪽), 아랍에미리트 그린디젤 프로젝트-아부다비 현장. 사진제공 GS건설

◇정유, 가스 플랜트 등 중동 시장에서 강세= 지금까지 GS건설의 해외 수주 실적을 보면 정유, 가스 플랜트 건설 수요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현재까지 GS건설의 해외 총 수주액인 45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5억 달러를 중동에서 수주했다.



특히 원유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를 차지하는 아랍에미리트는 GS건설이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내 국가다. GS건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사업은 그린디젤 프로젝트. 아부다비 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루와이스 산업단지에서 2008년 수주 및 착공해 작년 6월 준공했다.

이어 수주하며 올해 해외 수주 10조원 목표 달성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 NTF(Ng Teng Fong) 병원 프로젝트는 GS건설의 해외 건축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사업비 11억4000억 달러 규모의 복합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GS건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에 기반을 둔 외국 선진사들이 독식해 오던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아시아 건설시장, 토건 프로젝트 활발= GS건설의 아시아 지역 수주 실적은 토목, 건축분야에서 두드러진다. 2008년 베트남 TBO 도로공사를 비롯,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 공사, 싱가포르 Depot C-911, C-913, C-925, C-937, 톰스 라인 T203 등 도로 및 지하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지속적인 공사 수주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토목분야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동지역에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메트로, 철도, 항만, 교량 등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공사 수주 협력을 다지기 위해 UAE 최대 건설업체인 아랍텍(ARABTEC)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금약으로 따지면 2009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아부다비에서 수주한 100억 달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45억 달러를 GS건설이 독식한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의 토건분야 해외 진출은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단절됐다가 2009년 싱가포르에서 지하철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GS건설 토건중동·아프리카지역 담당 이상기 상무는 “GS건설은 지난해 9월 5억 달러 규모의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남부 구간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 메트로 건설시장에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아랍텍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로컬 영업력 강화를 통해 향후 MENA(Middle East /North Africa)지역의 인프라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 들어 GS건설은 지난 2월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 1조6700억원, 이라크 카르발라 프로젝트 2조4100억원, 알제리 카이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3800억원 수주까지 중동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

건축분야에서도 2011년 3400억원 규모의 퓨저노폴리스 연구시설 빌딩을 수주한 데 이어, 작년 5월 싱가포르 보건국가 발주한 5933억원 규모의 ‘NTF(Ng Teng Fong) 병원’ 신축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

불박이 가구·가전 외에도 ‘아파트 옵션’ 다양해진다

국토부 ‘분양가격 산정’ 개정안
기준 4가지서 추가품목 확대

플러스 옵션으로 불리는 아파트의 추가 선택품목이 앞으로 보다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추가 선택품목을 국토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발코니 확장 △천장 매립형 에어컨 △불박이 가전제품 △불박이 가구 등 4가지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입주자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폭도 넓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추가할 만한 품목이 없어 당장 새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7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서천2차 아이파크’ 75㎡ 특화평면... 중형 같은 넉넉함

현대산업개발, 193가구 공급
알파룸 통해 서비스면적 키워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면 서천택지개발지구 6블록에 ‘서천2차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서천2차 아이파크의 전 가구는 전용면적 75㎡로 구성된 특색상품으로 공급된다. 가장 대중적인 85㎡ 주택형을 선호하는 실수요 고객들의 분양가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해 실속형 평면 설계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서천2차 아이파크’의 조감도. 알파룸과 같은 서비스 면적은 늘리고 수납공간은 최대한 확보해 실제 거주공간은 8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구를 판상형 4베로 설계했으며, 알파룸을 통해 주방을 넓히거나 각종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실 사이와 침실과 거실 간에 가변형 벽체 2개를 각각 적용해 거실을 넓히거나 침실을 합칠 수 있도록 배려해 3~4인 가족에 적합하다. 나머지 96가구는 타워형 3베로로 안방에 알파룸을 제공해 넓은 침실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주방과 거실이 양옆으로 트여 있어 부부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젊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됐다. 모델하우스는 수원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오는 23일 오픈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신시장·신사업 ‘블루오션’을 찾아서...

카자흐스탄 첫발... 국내 최초 PMC 진출

GS건설은 해외 수주 시장을 중동 및 동남아 등 기존 진출 국가 중심에서 향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적극적 시장 다변화 전략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진출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CIS(독립국가연합)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해 9월 23일 영국 페트로파사, 독일 린데사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의 KLPE합작사가 발주한 37억7716만 달러(약 4조8766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신설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

KLPE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는 수도 아스타나에서 남서쪽으로 1500km 떨어진 카스피해 인근 아따라우주 카라바탄과 텡기시 지역에 연산 40만톤 규모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2기를 건설하는 공사다.

시장다변화 전략 꾸준한 성과
CIS지역서 37억달러 프로젝트

EPC사업 ‘글로벌 강자’ 명성
베네수엘라 플랜트 총괄감독

이번 수주는 아제르바이잔 석유정제 시설, 아르메니아 복합화력발전소,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복합단지 공사에 이어 CIS지역에서 4번째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향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지역의 정유, 가스, 석유화학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4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가 발주한 베네수엘라 엘 팔리토 정유공장 증설공사 수행을 위한 관리용역 계약을 따내며, 주력사업인

EPC(설계·구매·시공)가 아닌 신사업 PMC(프로젝트 총괄 관리)사업으로 베네수엘라에도 첫 진출했다.

동종 업계 최초로 신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EPC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무인 만큼 그동안 해외 플랜트 EPC 수행 역량을 쌓아온 GS건설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주력 사업인 EPC사업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PMC사업 수행 역량도 키워 글로벌 종합건설사로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를 발판으로 향후 중남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시행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는 “이번 수주는 GS건설의 신사업 첫 진출과 동시에 신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사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GS건설의 해외 사업 전략인 공중 다변화 및 시장 다각화 전략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주택 수요자 “매매 살고 전세 안정될 것”

주택가격평가지수 2만기째 100 넘어... “집값 상승” 호의적 시선
6개월후 전세가격전망지수 작년보다 낮아... 하반기 안정세 기대

올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26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집세기에 빠져들 것이라 전망과는 달리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수도권 거주자 437명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평가지수(CSI)’가 107.4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가격평가지수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6개월 전보다 상승했는지 여부를 묻어 산출한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지금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이하는 그 반대다.

실제 2012년 말 이후 매매가격 변동률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으며 2014년 들어서며 상승세(수도권 1분기 기준, △0.66%)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분양시장의 연이은 성공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6개월 후 주택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7를 기록하며 2013년에 이어 3분기 연속 100을 넘겼다. 수요자들은 거주주택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인식은 매매 호가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 등의 지표로 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매매와 전세, 분양 등 부동산 거래시장 전반에 걸쳐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매매시장은 6개월 전과 가격이 비슷하거나(60.4%) 6개월 후 비슷할 것으로 전망(53.1%)하는 응답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상승했거나(26.5%) 상승할 것으로 전망(34.5%)하는 응답은 30%대 수준을 보였다.

매매와 달리 전세시장은 상승에 더 많은 비중이 나타났다. 6개월 전보다 가격이 상승했거나(50.3%) 6개월 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43.0%)하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까지 더해지면 전체 90% 이상의 비중이다.



전세가격 전망을 나타낸 ‘주택가격평가지수’가 임대 거주자 122.5, 자가 거주자 119.1로 작년 하반기보다 모두 낮게 집계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문정동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그러나 6개월 후 전세가격 전망을 나타낸 지수는 임대 거주자 122.5, 자가 거주자 119.1로 작년 하반기보다 모두 낮게 집계돼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세계의 공장’ 중국의 생산기지 ‘아프리카’

인건비 본토의 4분의 1...현지 고용 늘려 주민도 환영 남아공·에티오피아 등...유럽·북미 진출 교두보 마련

‘세계의 공장’ 중국이 검은대륙 아프리카를 새 생산기지로 삼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인건비 상승에 대처하고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아프리카에 공장을 짓고 더 많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제일자동차(FAW)그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엘리자베스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트럭과 상용차를 생산하는 새 공장을 짓고 있다. 산발업체 화젠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에티오피아에 최대 20억 달러(약 2조5100억원)를 투자해 이 지역을 유럽과 북미 수출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중국 기업들은 또 우간다에서 쇠파이프와 섬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저렴한 인건비는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세계은행(WB)이 비숙련공 임금을 비교한 결과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린이푸 전 WB 부총재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수년간 중국 내 8500만개 일자리가 이들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프리카의 소비 잠재력도 중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



중국 하이센스 남아공 공장에서 근로자가 TV를 생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또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자원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가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자 자국 근로자들을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정책을 펼쳤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자국 근로자가 21만4534명으로 지난 2011년보다 18% 증가했으며 전체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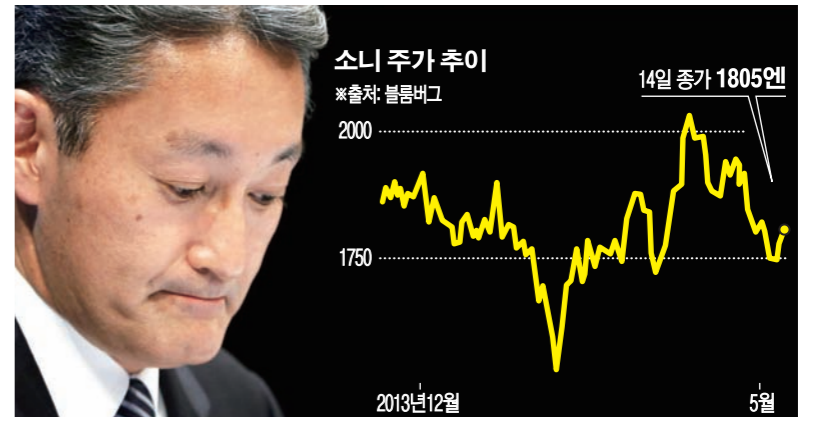
남아공 기업윤리연구소가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인의 46%는 중국의 이런 관행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55% 응답자는 ‘중국 기업이 오직 자국 근로자만을 채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기업들도 생산기지를 아프리카에 건립하면서 이런 부정적 인식 해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WSJ는 전했다.

시노스틸의 웨이중 남아공 지사장은 “약 3000명 직원 대부분을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며 “많은 중국 근로자를 이곳으로 데려오면 문화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TV 제조업체 하이센스는 남아공 케이프타운 공장 직원 600명 중 95%가 현지인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더



5000명 줄이고 PC사업 접어도 실적부진 히라이 ‘늘어가는 한숨’

〈소니 CEO〉

2012년 엔저 효과 힘입어
5년 만에 흑자전환 했지만
작년 1조원 손실 ‘적자전환’
올해도 부진 이어질 전망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히라이 CEO의 리더십도 흔들리게 됐다. 히라이는 지난 2012년 4월 소니 그룹의 수장을 맡은 이후 이제까지 세 번이나 순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그는 회사의 부진을 타개하고자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히라이 CEO는 2월 실적 전망을 내놓는 자리에서 5000명 감원과 함께 PC사업부를 매각하고 TV사업부를 분사하겠다고 밝혔다. 히라이는 단단히 졸라매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부는 과감히 쳐내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뼈를 깎는 개혁에도 회사의 적자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차세대 게임 콘솔 ‘플레이스테이션(PS4)’이 경쟁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를 크게 따돌리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그룹 전체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회생 전략의 핵심이었던 스마트폰 사업도 부진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에서 지난 분기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3.8%에 그쳤다. 반면 삼성전자는 31%에 달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캘리포니아 최악 가뭄에 산불까지... 14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에서 고온건조한 날씨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샌디에이고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이들 동안 6.3km²의 숲을 태우고 절반도 진화되지 않았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美 10년 국채금리 6개월새 최저치

장중 한때 2.52%까지 하락 ECB 부양책 전망...매수세

미국 국채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6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4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2.52%로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1년 동안 2.60~2.88% 대에서 움직였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국채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유럽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미국채를 사들인 영향이다.

경제전문매체인 마켓워치는 ECB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으며 BOE 역시 내년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CB는 오는 6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양적완화를 비롯해 추가 경기부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월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지만 국채 가격의 상승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PI)가 0.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1년 동안 PPPI는 2.1% 올랐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물가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n@

베트남 반중시위 하루 만에 진정세

베트남 반중국 시위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하루 만에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호찌민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베트남 당국이 14일 과격시위 진압자인 남부 빈즈엉성 공단 주변에 경찰과 군 병력을 대거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면서 이 지역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위로 54개 한국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빈즈엉성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동나이성 5곳, 타이닝성 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 한국 제조업체 대표가 성난 시위대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려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며 시위대는 이 업체 공장 건물 1층에도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대상인 중국과 대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싱가포르 일부 업체도

정부를 장갑차 등 병력 배치
집단시위 원천 봉쇄 성공
첫날 한국기업 54곳 피습
태극기 게양 후 피해 없어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 당국은 14일 중국기업들이 몰려 있는 일부 공단에 장갑차 등 중화기까지 동원해 집단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또 현지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방화와 폭력, 약탈행위를 한 혐의로 500여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빈즈엉성에 긴급 파견돼 한국 피해 업체를 지원하던 한국 총영사관 영사들도 14일 밤 철수하는 등 이 지역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빈즈엉 지역의 일부 한국업체는 15일부터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당한 54개 업체는 아직 피해 산정이 끝나지 않아 조기 조업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위에서 총영사관 지침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태극기를 게양한 것이 특별한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태극기가 일제히 걸린 14일에는 한국기업의 피해가 없었다. 또 일부 업체는 현지 직원들을 내세워 회사에 진입하려던 시위대를 설득하고 ‘베트남은 우리의 친구’ ‘우리는 베트남을 지지한다’ 등의 플래카드를 거는 등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를 막았다.

한국업체 관계자들은 태극기 효과에 대해 한류와 전쟁 참화를 딛고 일어난 역사 등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세계 최고 MBA는 ‘시카고대’

포에츠앤퀀츠 선정...100점 받아
작년 1위 펜실베이니아대는 2위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이 세계 최고 경영학 석사(MBA) 과정으로 선정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츠앤퀀츠가 발표한 것이다.

MBA 종합정보업체 포에츠앤퀀츠

(Poets&Quants)에 따르면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은 평가 점수 100점을 받아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부스의 MBA의 특징은 일부 선택과목은 시카고 학교 외에 일정 기간 홍콩과 런던 등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학위 비용은 총 16만8000만 달러(약 1억7200만원)로 학위 과정은 21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이 97.8점으로 2위로 밀렸다. 와튼의 MBA의 특징은 일주일 모두 출석하는 코스와 국제 세미나, 금-토 수업도 진행한다는 점이다. 학위비용은 18만1500달러로 시카고 부스보다 비싸다. 학위과정은 24개월이다.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스쿨은 96.6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했다. 4위는 스페인의 IE 경영대학원, 5위는 듀크대 푸쿠아 경영대학원이 차지했다. IE 경영대학원은 올해 94.2점을 받아 지난해 14위에서 10계단이나 상승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터키 탄광폭발에 국민 분노 폭발

터키에서 전력공급장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탄광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270명이 넘는 가운데 곳곳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석탄 채굴이 터키의 주요 산업이지만 정부 당국의 안전 관리가 소홀해 ‘인재(人災)’라는 정부 비판론이 거세졌다.

타네르 이물드즈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사망자가 27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신들은 당시 광부 787명이 갱도 안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450명은 구조됐다. 아직 갱도에 갇혀 있는 광부들이 있으나 구조가 쉽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희생자 추모를 위해 사흘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일어나곤 하는 것”이라거나 다른 나라의 과거 탄광 사고를 거론하는 등 사태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참사를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터기 곳곳에서 벌어졌다.

앙카라 중심가 크즐라이 광장에 3000~40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번 사태를 규탄했고 이스탄불에서도 수천 명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구글글라스 일반인 판매 재개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안경 ‘구글글라스’의 일반인 판매를 할 달 만에 재개한다고 14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구글글라스 개발팀은 전날 구글글라스를 통해 이갈이 공지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구글글라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 다만 구글이 선정하

는 ‘익스플로러’ 체험단으로 선정돼야만 구입이 가능했으며 지난달 15일 단 하루만 판매가 진행됐다. 회사는 구글글라스가 ‘오픈 베타(공개 시범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500달러(약 154만원)로 관련 세금도 별도다. 구글은 현재 보유 재고 수량이 얼마나 되며 정식 버전 출시 일정이 언제인지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미군, 北전염병 대비책 마련

주한미군이 북한발 전염병의 무차별 확산을 우려해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육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통합 위험분석포털(JUPITR)’이라는 이름의 생물학적 위험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북한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공중보건체계가 붕괴될 경우 전염병이 한국 등 주변지역으로 번지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조치다.

내년까지 완료할 이 대비책에는 전염병 외에도 화학·생물학 무기에 대한 조기 대응 방안도 포함된다. 이 대응계획은 발병 정보 수집망 구축·주한미군의 자체 병원 군 분석능력 배양·한국군 당국과의 연계 강화·신속한 정정지역 구성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미 육군은 이를 위해 최근 병원군 치료의 분석 시간을 약 2일에서 5~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첨단 검사장비를 주한미군에 배치했다.

미 육군은 2015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국방부가 이 계획을 확대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한달 7부능선 넘은 검찰 수사

유병언 회장 정조준...해경 대원 소환도

유 회장 내일 출석 통보... 부실대처 해경도 별도 수사
화물 과적·과격변침·불법 증축... 예견된 사고 실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로 접어들면서 관련 수사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여기에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 부산-인천지검 등 항만을 낀 관할 지방검찰청이 별도의 팀을 갖추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세월호 선장과 선사 대표 등 일차 책임자들과 유 전 회장 측근 상당수가 구속되면서 수사는 '7부 능선'을 넘었다. 특히 사고 원인이 하나 둘 실체를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화물을 과적했고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아랫부분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는 평형수를 줄이고 출렁였으며 사고 지점에서 과격하게 방향을 틀다가 급속히 침몰했다. 또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어처구니없는 사실과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침몰 및 사고 대응에 작-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증축, 부실 고박, 엉터리 구명벌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유기지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주요 승무원 15명도 구속됐다. 합수부는 15일 이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과적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선사 관계자 5명도 구속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게 이번 참사의 작-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함에 따라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이 각각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총체적 부실 대응'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해경에 대한 본격 수사도 임박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별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박태진 기자 tjiippo@

정부의 안일한 대책... '한국호'도 가라앉나

인재 넘어 관재로... 정책 불신 커져
소비위축에 가계부채 악화 우려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우왕좌왕하는 정부 모습에 사회-경제적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의 대형 인명피해가 인재(人災)를 넘어 관재(官災)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초기 구조대응 실패와 공

직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민 낮이고 소란히 드러나면서 정권교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불신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세월호 참사로 손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개혁 모멘텀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소비 심리 냉각이 나타나면서 그 여파가 대부분 관광, 숙박, 요식업, 백화점, 할인점 등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우려한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이번 세월호 사태로 가중돼 서민경제가 파탄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경제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세계-금융 지원으로 긴급 해결에 나섰지만 기존 대책들만 나열한 알맹이 없는 정책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생각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안일한 구조 대응과 유사하다. 자칫 세월호 참사가 '한국호' 침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젠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사회-경제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스승의 날 '눈물의 카네이션'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단원과 고 최해정 교사가 영면에 든 경기도 화성시 호원남골공원에 제자들이 두고 간 카네이션과 편지가 자리 잡고 있다. 최영진 기자 strongman55@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접속폭주 사이트 '떡통'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잡자는 국세환급금' 찾기 운동에 나섰다.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빛이 바랬다. 14일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순식간에 접속 불가 상태가 됐다.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불편과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 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13년 대상액은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된 결과 초과 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다. 환급금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유혜은 기자 euna@

동아ST '스티렌정' 건보 중단·600억 환수

(천연물 신약 위엄치료제)

임상결과 제출시한 못지켜
"제재 과하다" 소송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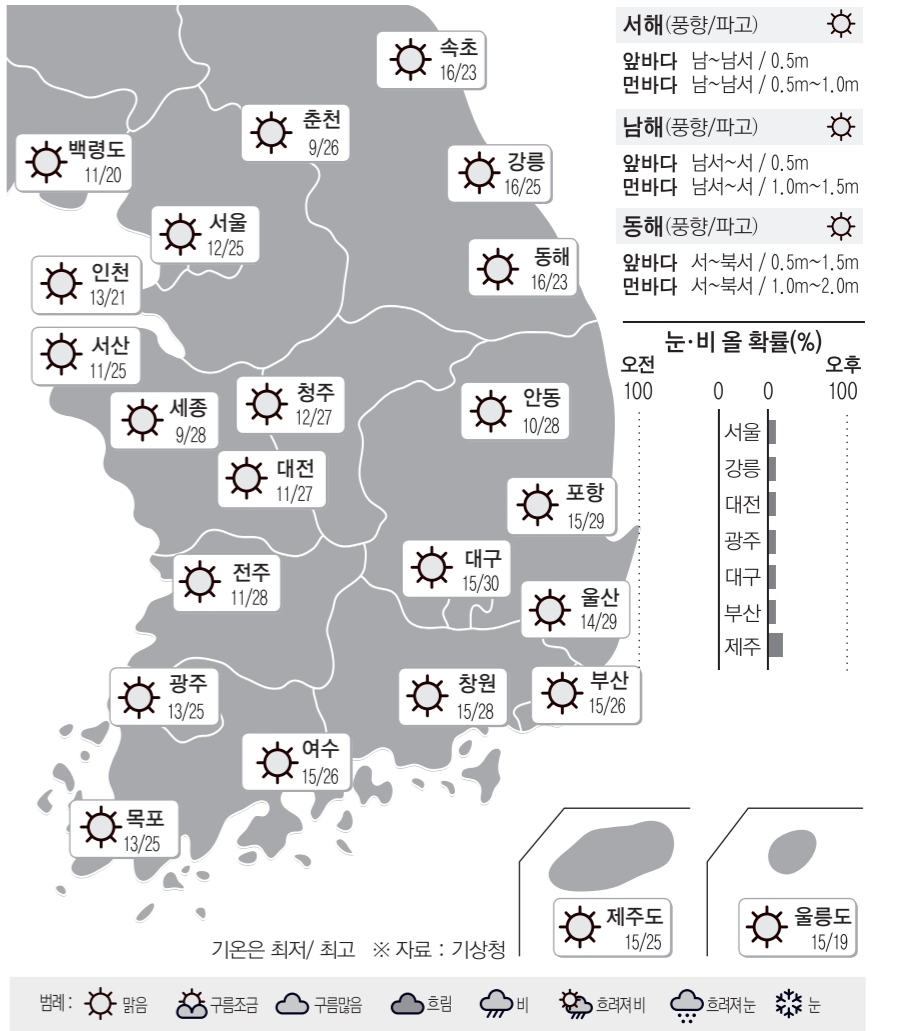
내달 1일부터 동아ST 위엄 치료제 스티렌정의 위엄 예방 효능에 대한 보험 적용이 중단된다. 또 그동안 청구된 약 품값의 일부인 약 600억원도 환수조치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천연물 신약인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부류에 따른 위엄 예방' 적용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티렌정의 '위엄 예방 효능에 대한 보험적용이 내달 1일부터 중단된다. 스티렌정은 2002년 위엄 치료제로 출

시됐지만 2011년 위엄 예방 효능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보험급여가 제공됐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엄 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급여 조건이었다. 하지만 동아ST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구하지 못해 올해 3월에서야 시험을 완료했다. 뒤늦게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지만 건정심의 보험급여 제한 결정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2011년부터 3년간 스티렌정 매출액의 30%인 약 600억원을 환수조치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 한해 스티렌정이 기록한 매출액 66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수금액과 관련해 동아ST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나눠 환수

할 것인지 등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을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티렌정은 위엄 예방 효능에 대한 보험적용이 중단되면서 관련 처방전에 서도 빠지게 됐다. 스티렌정이 동아ST 전체 매출의 12.7%를 차지하는 '블록버스터'인 만큼 향후 매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동아ST는 건정심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ST 관계자는 "임상시험 결과가 6월 말까지 논문에 게재되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임상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행정소송 및 행정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유 기자 thec9@

내일의 날씨 5월 16일 ☀ 해돋이 05:23 해질 19:35 🌙 달출 21:07 달짐 06:30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밤 한때 구름때울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일교차가 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면바다에서 2.0-3.0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신한은행 파생상품 부당거래... 금감원 제재

시중은행들이 수천억원대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서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 신한은행의 파생상품 부당거래와 관련해 해당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시중은행도 같은 내용으로 징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지난해 3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위험 분산을 위해 제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이 반대 거래를 통해 소멸하는 변칙적 계

약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원한 점이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리스크 없이 금리 차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거래 1097억원, 반대 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SC은행과 체결했다. 또 이 계약은 최초 스와프 계약과 반대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거래확인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15분의 시차를 두고 체결된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산업계 대학평가, 성균관대 등 36곳 최우수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 서강대 등의 학교가 산업계가 뽑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성균관대, 경희대, 광운대, 서강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학들과 더불어 한국기술교육대, 경북대, 영남대 등 지역 대학들도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이들 8개 대학은 전자반도체·정보통신·컴퓨터(SW)·정유석유화학·정밀화학(화학품) 등 5개 분야에서 2개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다. 전자반도체 분야에서는 경희대(가나나)·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영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등 9곳이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다. 정보통신은 경북대 등 8곳, 컴퓨터(소프트웨어)는 광운대 등 11곳, 정유석유화학은 한양대 등 6곳, 정밀화학(화학품)은 단국대 등 2곳이 각각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성균관대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유화학, 정밀화학 등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고 한국기술교육대는 3개 분야에서 각각 선정됐다.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삼성전자, GS칼텍스, LG전자, 한글과컴퓨터, 아모레퍼시픽 등 총 32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36명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2163개 기업이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김부미 기자 boom@

프라임통상, 부산 인터넷쇼핑몰 판매 직원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상장기업 프라임통상이 부산지역에서 인터넷쇼핑몰 직원을 채용한다. 모집요강은 온라인쇼핑몰판매원, 직무내용 매장판매, 포장, 사무관리 업무, 접수마감일 2014년 5월 31일, 고용형태 기간 정형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고졸, 우대사항 여성, 매장관리·판매·포장 유행형자, 엑셀고급활용자

는 채용 시 가산점을 받는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특히 엑셀고급 활용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다만, 회사는 파견근로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지는 부산 동래구다.문의 051-556-9981. 박태진 기자 tjiippo@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노후생활과 주택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주택 문제다. 주택은 전체 재산 중에서 70~80%를 차지하는 최대의 자산이다. 중년 중에서 은퇴 후 현금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30%대에 불과하다. 즉 현금과 금융자산은 부족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다.

결국 부동산을 잘 활용해야 노후생활이 원활하게 풀려 나간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미래는 생각보다 더 암울하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진행 중인 일본이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요즘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국에 약 800만 채의 빈집이 산재해 있는데, 이는 전체 주택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10여년 동안 거의 두 배의 속도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8년이 되면 전체 주택의 23.7%가 빈집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에서는 빈집 문제가 일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커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목재로 만든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요양원으로 이사하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빈집이 생기게 된다. 이미 지어진 지 40~50년이 넘는 빈집들은 임대나 재활용하기에는 너무 낡아 있으며, 젊은 근로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도심에서 멀리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빈집으로 방치되고, 자연스럽게 도시 흉물로 전락하게 된다. 이웃으로선 관리 부재에 따른 화재가 염려되고, 전염병과 범죄의 온상이 되니 매우 골치 아픈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빈집을 허무는 재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다. 교토의 경우 낡은 목조 건물의 빈집을 매년 900채 넘게 해체하고 있다.

인구 줄기 시작한 일본

전체 주택 13%가 빈집

주택 노후화 사회문제로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장기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4396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30년 만에 최고치 대비 15%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이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인구만 예측하지만 국회예산처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214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출산율이 1.3명을 지속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시대에는 주택이 남아돌게 된다. 그 여파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 말고도 주택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 저성장, 저물가도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며, 주택의 노후화 현상도 더해질 것이다. 옛날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명은 약 40년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분당, 일산, 산본과 같은 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이나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주택연금과 같은 주택 활용화 방안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도 우리나라의 노후설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퇴연구소장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이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나?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딛 것처럼 생난리를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라는 욕을 먹는 것”(김호철 전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실종자 가족 중에 전문 선동꾼이 있다.”(연은희 새누리당 의원)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박승훈 보훈처장)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송영선 전 의원)

브레이크 없는 막말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꽃도 피우지 못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점멸하는 배에 남겨두고 자신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부터 인천지검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화려한 금빛 의상과 선글라스 거기에 웃음까지 지어 보이는 중견 탤런트 전양자까지 막장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끊없이 쏟아진다.

무책임과 무능으로 점철된 정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

막장 드라마와 2014년 대한민국

에만 눈이 먼 정치권, 탐욕으로 얼룩진 기업,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비리와 부패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하는 탐욕이 결국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막장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2014년 5월 15일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사회의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자신의 자식을 살리고자 남의 자식 심장을 빼내려는 재벌,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이복동생, 돈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주... 2014년 5월 15일 TV드라마에서 펼쳐진 풍경들이다.

내연남의 부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슴없이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하려 하고, 한 여성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방해가 되는 연인과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인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도 모자라 불륜녀로 둔갑시킨다. 막장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의 잔혹함과 폭력성, 선정성에 혀를 찰던 시청자와 국민은 “정말 드라마 보기가 무섭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 비극을 일태한 2014년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서 국민은 말한다. 우리 사회가 드라마보다 더 무섭고 잔혹하다고,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고.

“막장의 정황은 사회가 막장일 때 설득력을 발휘한다. (드라마 스토리의) 막장 현상이 지배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한국이 막장이기 때문이다”라는 아주대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의

막장 사회와 막장 드라마의 연계성 분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시청자는 우리의 정서를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장의 살벌한 현실을 조장하는 막장 드라마의 폐해에 대해 질타했다. 선정성과 폭력성, 자극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돈과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브레이크 없는 무한질주를 하는 막장 사회를 만든다는 비판을 첨언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는 막장의 현실은 드라마의 잔혹성과 폭력성, 자극성을 압도한다. 막장의 현실은 이제 막장 드라마의 극단성을 확장하는 소재와 기제 역할까지 할 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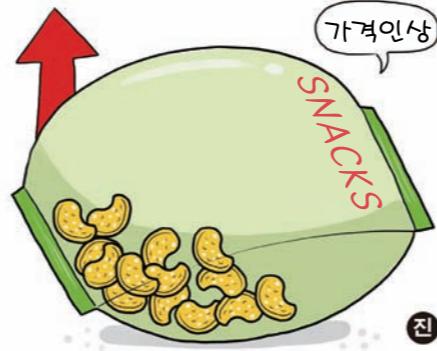
막장 드라마를 향한 비판에 대해 “무슨 소리냐. 현실이 더 막장이지 않느냐. 전문가나 대중매체에서 비판하는 막장 드라마는 막장이 아닌 리얼리티가 높은 현실적인 드라마”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작가와 연기자들의 강변과 궤변 앞에 이제는 할 말을 잃게 됐다.

세월호 참사라는 현실의 비극 앞에선 정말 그렇다. 국민의 84.7%가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반복될 것이라고 답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두렵기까지 하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2014년 막장 사회의 끝은 어디일까. 정말 공포스럽다.

knbae@



삼겹살보다 비싼 과자값, 좀 심하지 않나요?



○... 지난해 10월 제과업체들이 일제히 과자값을 올린 이후 지난달 냉장 삼겹살보다 평균 소매 가격이 높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기보다 더 비싸다니. 질소 좀 빼고 정직하게 팔아라”, “과자 가격이 미쳤다”, “애들 간식으로 과자 사주기보단 견과류나 과일을 더 주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과업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터무니없이 비싼 국산 과자 안 사 먹은 지 오래”, “과자값을 올리면서 말쑥이 먹고 질소는 늘려서 전보다 봉지가 더 커졌다”, “요즘 과자값이 진짜 비싸긴 하다. 박스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있는 건 4~6개 정도뿐”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 한 로또복권 정보업체가 5월 1일부터 회원 21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또 당첨금이 00억

원이면 일을 그만둘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인 874명이 ‘당첨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을 할 것.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안 할 듯”이라고 말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또 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취미로 일하겠다”, “상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다니지 뭐. 여차하면 사표 내고”, “사회생활할 겸 다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현실 만족을 주장했다. “막상 그 돈 생기면 어찌될지 모를 것 같는데. 근데 진짜 100억원은 안 생기니까. 일이나 하자”, “로또 안 맞으니까. 하던 일 열심히 합시다”, “꿈에서 몇 번 당첨됐는데 현실에서 그럴 일 없겠지” 등의 글이 쏟아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오늘의 **이국향**

www.baekn.com

드라마 '유나의 거리' 소매치기 역 김옥빈



배국남닷컴은 14일 김옥빈을 만났다. 김옥빈은 큰 인기를 모았던 MBC 드라마 '서울의 달'(1994)의 김운경 작가가 집필하는 JTBC 새 월화드라마 '유나의 거리'에서 타이틀 롤을 맡았다.

꽃백, 일용직 노동자, 전직 강매 등 주변부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과 공감을 유도할 '유나의 거리'는 김옥빈과 '서울의 달'의 한석규가 합성된 예고영상이 눈길을 끈 바 있다. 김옥빈은 “촬영 당시 CG에 이용할 파란색 스크린밖에 없는 상태에서 연기했다.

'서울의 달' 속 한석규의 팔이 꽤, 그 맥을 이어받는 느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극중 김옥빈은 전설의 소매치기 왕의 딸인 강유나를 연기한다. 김옥빈은 “실제 소매치기 생활을 하다 현재 사업 중인 분께 (소매치기에 대해) 지도를 받았다. 굉장히 조직적인 방식이고 금액도 어마어마하더라”며 “다른 드라마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다. 제가 독특한 캐릭터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옥빈은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운경 작가와 임대우 PD를 존경해 함께 하고 싶었다. 그리고 워낙 대단한 선배님들이 출연하시기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실 제가 순발력이 부족하다. 과연 드라마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50부작인 만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배워 나가겠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김옥빈은 '유나의 거리'가 높은 관심을 끌었던 '밀회'의 후속작인 점에 대해 “좀더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이 '유나의 거리'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보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는 게 (시청자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박원순 정몽준 팽목항 방문...엇갈린 행보와 현지반응
- 2 세모그룹 제품 불매운동 '제품리스도'도 관심 폭증
- 3 연세대학교수 131명 시국선언... '세월호 침몰은 국가의 침몰'
- 4 영종대교 버스 정소차 추돌... 사고 원인 분석해보니
- 5 메르스 바이러스 창궐로 180여명 사망...속주는 낙타?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당고에 기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NAVER 지앤에스지

正論

세월호와 폴 오닐의 교훈

참혹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뭘 고쳐야 하는지 몇 가지만 거론해보자.

첫째,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늘려줄 수는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인명 피해와 환경 파괴 등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는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강화하는 노력이 기울여야 한다.

둘째, 소방방재 예산을 비롯해 재난관리 및 위기 대응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문서 비치에 그치고 위기 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 가정 등 각 관련 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훈련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유사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셋째, 안전을 도의식한 채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전개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다. 한국은 이 같은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국가 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경미한 제재와 처벌과 연관돼 있다. 실제로 국내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형량은 대부분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실제로 작업을 지시한 원청기업이나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기업 등이 담터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기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산재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 해당 기업은 1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도 이 같은 기업살인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째, 이런저런 방안이 나와도 이 나라의 강력한 조직 문화와 습관으로 자리잡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문제를 최고 국정 과제로 올려놓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뉴욕타임스 찰스 두히그 기자의 저서 '습관의 힘'에서 소개된 철강기업 알코아의 CEO를 역임한 폴 오닐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국(OMB) 국장을 역임한 이후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철강

업체 알코아의 CEO를 역임했던 폴 오닐은 당시 경쟁력이 뒤져 있던 사양기업 알코아를 되살리기 위해 '산업재해 제로'에 도전했다. 산재사고가 제로가 되려면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을 최우선시 하는 회사 방침이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고 실제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자를 바로 해고하는 등 조직의 습관이 바뀔 때까지 강력하게 목표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알코아는 전세계에서 산재율이 가장 낮은 기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폴 오닐의 재임기간 동안 알코아의 수익은 15배나 증가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에 뿌리 내린 생명경시와 안전경시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돌아보라. 박 대통령은 말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관련 예산은 줄이고, 두 달여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겪고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다시 살펴 보지 않았다. 더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서도 계속 규제 완화를 되뇌고 있다면 참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직접 피해자 가족들에게 같이 사과하고 임기 내내 폴 오닐이 그랬던 것처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끈질기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것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이 땅의 아이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한 최고 국정책임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다.

스타 에세이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40 가수

Cry)와 '백 앳 원(Back At One)' 등으로 익숙한 가수일 겁니다. 브라이언 맥나잇은 직접 곡을 쓰고, 연주와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저 또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하고 편곡까지 도맡아요.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제 가수명이 의미하죠? 나이 40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나름대로 40이라는 숫자에 고난과 역경이라는 의미를 부여해봤습니다. 현재 음악시장은 화려한 댄스 위주의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보는 음악이 아닌 제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40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 지금은 '캔버스(Canvas)'라는 미니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곡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활동도 왕성하게 할 계획이에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제 롤모델은 브라이언 맥나잇(Brian Mcknight)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원 라스트 크라이(One Last

기자의 눈

보건당국의 '홍역 퇴치' 자찬



김부미 정치경제부/boomii@

나가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대 학생 14명이 결핵에 걸린 데 이어 다음날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9명도 결핵 판정을 받았다.

홍역과 결핵은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분류된다. 전염성이 강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더 큰 피해 확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염병 창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전염병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는 이유는 보건당국의 안일하고 느슨한 관리 체계 탓이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 영유아기에만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성인이 된 이후 예방접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은 후진국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어린 시절의 예방접종만으로 항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계속적으로 알려 추가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실제 홍보에 앞서 보건당국 분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한다. 보건당국이 '유비무환'이란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벌써 망각한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눈이 부시게 푸르른(?) 5월엔



결코 아물지 않을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안은 5월이다. 5월이면 그날의 아픔을 오롯이 담아낸 무대가 남산예술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4년째 같은 배우, 같은 스태프가 같은 무대에 서고 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그린 '푸르른 날'이다. 저런 역사 속 젊은 청춘의 사랑이 슬프게도 진정성 있게 펼쳐진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고 꽃피운 남녀의 사랑이 신기할 정도로 희로애락을 모두 표현해내기 때문이다. 2011년 초연 이후 해마다 이어진 무대를 위해 처음 찾았다. 아픈 역사를 더듬기 위해서가 아니다. 슬프고 치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젊음을 사랑을 인생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제작진이 손수건을 판매하고 있었다. 관객의 눈물샘을 울려서 더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비장한 마음을 품은 덕에 지역 사투리를 이용한 코믹 연기, 배우들의 의도된 과장 연기에 크게 웃을 수 있었다. '푸르른 날'은 1980년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과 고문을 생생하게 재연해 광주의 고통이 단지 과거가 아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목직한 질문을 던진다. 무대엔 30년 넘는 세월을 의미하듯 긴 다락이 가로놓여 있다. 인물들은 팔을 뻗어 찾전을 잡기도 힘을 정도도 보이지 않아서 두 눈을 뜨고 관계를 이어간다. 무대 후면의 사천왕상과 복소리, 아득한 기억 속의 빠꾸기 울음이 1980년 5월 그날로 이끌었다. 극 마지막 서정주의 시를 송창식이 노래한 '푸르른 날'이 울려 퍼졌을 땐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져버렸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지거 저 거 가을 꽃자리/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내가 죽고서 너가 산다면!/내가 죽고서 너가 산다면!/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술아 술아 푸른 술아/아고 울어보라. 리듬이 깨져 영 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마저 끊긴다. 시의 생명인 운율 때문이다. 그래서 시적 허용이 있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을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찬성했음에도 국론 분열을 운운하며 이를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다. 광주 망월동 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인생의 푸른 날을 역사에 빼앗긴, 그래서 푸른 날을 노래할 수도 없었던 이들이 그리워하라. 편집부 교열기자 jsiysh@

이투데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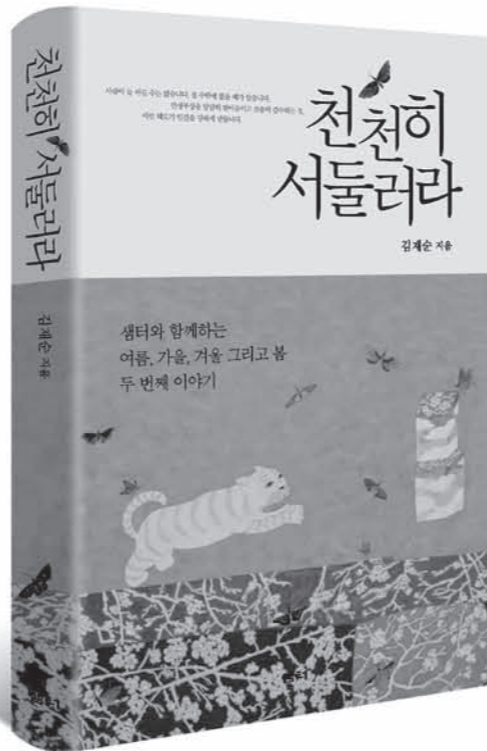
43년간 변함없이 월간 샐터 뒤표지를 지켜 온 지혜의 샘

“서두르되 무언을 위해 서두르는지 알고 하라”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 줄 한 권의 나침반

<샐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읽는 뒤표지글이 좋아 내 마음의 알자리로 모여 오곤 했습니다. 이해인 수녀(시인) 이 세상에 앞표지보다 뒤표지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샐터>가 그렇습니다. 정영희 교수(수필가) 김재순 씨(말포) 여든 살이 된다 하더라도 청년에 머물러 있는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최민호

월간 <샐터>의 창간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샐터> 뒤표지에 써온 글들을 묶은 책.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들려준다.



김재순 지음 | 224쪽 | 울췌러 양장 | 값 13,000원

내가 만드는 행복, 함께 나누는 기쁨

자신을 속이지 말라(無自欺). _이항의 유묵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만,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월간 샐터 2014년 2월호 특집 매를 맛있다

참살이 마음공부 법문 | 양민자의 다락방 책꽂이 | 뉴욕에서 떠온 진주알 편지 현경 기생충에게 배우다 서민 | 속구 수집가의 보물창고 이재형 | 나뻛덕의 신책 개그맨 김경진의 먼지 | 할아버지의 부엌수업 | 사사시문 기자여행

함박는 함박웃음 샐터 정기구독 이벤트 (2014년 2월 7일까지)

- 1 샐터 2개월 추가 증정, 2 레노의 자수 타일 (1개, 예쁜한 한정 발행), 3 통 티스폰 + 프크 세트, 4 클래식 정사각 유리컵(베레카 2개 (1000개 한정)), 5 수필집 (지혜의 샘)은 서울에도 권할이야! (노들 땅에선 한디 세 번째 이야기)

• 1권 값 2,500원 /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25,000원 (5,000원 할인) • 정기구독 문의 및 신청 T. 02-763-8961 family@isamtoh.com

“윈 없이 뛰었다... 7월 결혼 제2인생”

전격 은퇴 발표한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 올해 초 무릎 부상에 결심... 지도자 생각 없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성(33·PSV 아인트호벤)이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난다. 박지성은 14일 경기 수원의 박지성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최근 아인트호벤 1년 임대 연장과 퀸즈파크 레인저스(이하 QPR) 복귀, 그리고 은퇴를 놓고 고민하다 은퇴로 마음을 굳혔다. 부모님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박지성은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경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다음 시즌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래서 올해 2월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모든 열정을 그라운드에 쏟아온 만큼 미련도 없었다. “축구에 미련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착역은 아니다. 그라운드는 떠나지만 결혼생활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박지성은 이날 7월 27일 연인 김민지(29·전 SBS 아나운서)와의 결혼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결혼식 관련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대길 축구해설위원은 “솔직히 충격적이다. (박지성의) 은퇴 사실은 어제 알았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이번 브라질월드컵 출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월드컵을 30일 남겨놓은 시점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것이 없다. “지도자가 될 생각은 없다. 행정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성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해 6월 일본 J리그 교토상가FC에 입단, 일본 무대를 누렸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박지성(33·PSV아인트호벤)이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박지성 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를 선언했다. 이날 박지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박지성이라는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을 만나면서다. 박지성은 ‘히딩크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폭넓은 활약을 펼치며 히딩크의 기대에 부응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4강 신화의 주역이 됐다. 그해 12월은 이영표(37·KBS 축구해설위원)와 함께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로 떠났다. PSV아인트호벤이다. 2005년

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로 이적, 프리미어리그의 꿈을 이뤘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4년 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무릎 부상 악화로 인해 국가대표 생활을 접었다. 이후 QPR로 이적했고, 올 시즌은 제2의 고향인 PSV 아인트호벤에서 임대계약 선수로 활동했다. 오성민 기자 golf5@

기숙형 다문화 학교 ‘한누리학교’ 박형식 교장 “소통과 배려, 교육의 기본 글로벌 다문화 인재 양성”

다문화 가치가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기일보(김민 기자 suein84@)에 따르면 전국 최초의 초·중·고 통합 기숙형 다문화 학교인 한누리학교의 박형식(사신) 교장은 다문화 교육의 기본으로 소통과 배려를 꼽았다.



최고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누리학교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군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통하는 다문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사람이 넘치는 학교,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를 조성해 창조적 다문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 교장은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려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학교를 이끌고 있다. 그는 “마음이 열려야 교육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소통과 배려가 교육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학교는 지난해 개교한 학교로 박 교장은 여전히 교육 환경 조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있다 보니, 학생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으로 한누리학교는 각종 행사마다 지역 인사를 비롯해 각종 교육계 인사들이 참관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박 교장은 앞으로 전국 최초이자 전국

장래혁 서울대 교수 美 컴퓨터저널 편집장에

장래혁(사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미국 컴퓨터학회 저널 편집장으로 선임됐다. 장 교수는 오는 6월부터 3년 간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트랙잭션 반도체 설계자동화 저널 TODAES(Transactions on Design Automation of Electronics Systems)의 편집권을 갖고 부편집장을 임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1947년 설립된 미국 컴퓨터학회는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와 더불어 세계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이다. 또한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주관한다.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한 장 교수는 1997년부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내장형저전력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저전력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자로도 주목 받는 석학이다. 201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컴퓨터학회 설계자동화분과 의장에 선임됐고, 특훈회원으로도 선정돼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장 교수는 “한국인이 ACM 저널의 편집장으로 선임된 경우는 드물기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나라 컴퓨터공학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시인 최명란·동화작가 이봉 제24회 방정환문학상 선정

시인 최명란, 동화작가 이봉씨가 제24회 방정환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최명란 시인의 동시집 ‘해바라기!’와 이봉 작가의 동화집 ‘선생님 탐구생활’이다. 방정환문학상은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됐다.

인천AG 홍보대사 최경주 “태극마크 영광”

“홍보 활동·좋은 성적으로 기대 부응할 것”

최경주(44·SK텔레콤)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14일 인천 스키야드 골프장에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코리아 브라더스의 만형 최경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조직위원회는 PGA투어에서 한국 골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최경주에게 아시안게임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해의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직을 요청했다. 최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홍보대사로 위촉돼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다. 태극마크는 어릴 적부터 꿈

이었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또 “15일부터 열리는 SK텔레콤오픈을 비롯해 앞으로 출전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아시안게임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 스포츠인이 국내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 여러분을 격려했던 것처럼 최경주 선수의 활약과 인천아시안게임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린다. 오성민 기자 golf5@



김영수(왼쪽)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최경주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외환銀 ‘화폐전시관’ 45개국 통화 전시

외환은행은 세계 45개국 통화의 실물 및 화폐 화폐를 전시하는 ‘화폐전시관’을 개관했다.

화폐전시관은 명동 외환은행 본점 지하 1층 위변조대응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외환은행에서 환전 가능한 세계 45개국 통화 실물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화의 디자인 변경시 제작된 초판 인쇄본 등 일련번호를 가진 1000원권과 1만원권 등 희귀한 화폐가 전시돼 있다. 지극상에서 가장 비싼 통화인 싱가포르·브루나이 1만달러(원화 환산 800만원 상당) 화폐를 비롯해 각국 화폐를 세계지도 위에 전시함으로써 21세기 국가별 인쇄기술의 수준을 화폐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더불어 화폐전시관 맞은편에는 위변조 분석실이 배치돼 있어 국가별 위조방지 요



화폐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경태 한신은행 대표(사진 앞줄 왼쪽)와 김한진 외환은행장(사진 앞줄 왼쪽)이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이달의 과학자상’에 김영훈 서울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5월 수상자로 김영훈(사신)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교수는 대수기하학 분야에서 ‘모듈라이 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을 밝히는 등 수학적 응용의 실마리를 제공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미국수학저널, 기하학과 위상수학, 미국수학회지 등 수학 분야의 정상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뉴욕타임스 첫 흑인 편집국장 탄생

폴리처상 수상 딘 베케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62년 역사상 첫 흑인 편집국장을 임명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NYT는 이날 딘 베케이가 질 에이브러햄슨의 뒤를 이어 편집국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베케이는 폴리처상을 받은 인물로 로스 앤젤레스타임스의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NYT는 지난 2011년 첫 여성 편집국장인 에이브러햄슨을 임명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로써 에이브러햄슨은 취임 3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교체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슬츠버거 주니어 NYT 회장 겸 발행인이 에이브러햄슨에게 사임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전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딘 베케이 뉴욕타임스 신임 편집국장. 블룸버그

슬츠버거 회장은 이날 “뉴스룸의 관점을 세심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베케이 신임 국장을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에이브러햄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포스코, 이주배경 청소년 꿈 키운다

맞춤형 진로교육비 지원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

포스코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가족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3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업의 명칭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 3.0 민간 네트워크 확대 일환으로 시작했다. 여성가족부와 포스코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전국의 해체가정과 한부모가정

의 만 12~24세 이주배경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 40명을 우선 선정해 연간 최대 300만원의 맞춤형 진로교육비(검정고시, 예체능 등)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역기관의 추천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위원회 선정을 통해 대상이 결정된다. 포스코 박현 상무는 “해체가정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기 바란다”며 “이번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사

◆한국관광공사 승진 △글로벌컨설팅실장 박병직 △오사카지사장 신상용 △감사팀장 김성훈 △예산팀장 조준길 △인재개발팀장 황승현 △재경팀장 홍명진 △토토팀장 김두조 △관광컨설팅팀장 정영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보임 △경영지원단 인사노무팀장 이진규 △창조기반조성본부 인재양성단 인재기획팀장

김중석 △창조기반조성본부 인재양성단 SW인력팀장 전원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경영지원팀장 권용승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이일희 △경기운영본부장 부장 유재한 △경기운영2부장 조흥근
◆경남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장 이치우 △교육역량강화센터장 김근성 △국제교류원장 김병철 △기획부처장 김현욱
◆여수광양항만공사 △2급(부장) 전보

△창조혁신TF팀장 윤동훈 △항만운영팀장 유충호 △3급(차장) 전보 △창조혁신TF팀 박정철 △물류기획실 조성래 △4급(과장) 전보 △항만운영팀 안현모 △여수사업소 박기순 △5급(대리) 전보 △창조혁신TF팀 송경준 △경영지원팀 김민규 △경영지원팀 정찬민 △재무회계팀 박진우 △재무회계팀 윤승현 △물류기획실 설경철
◆연합인포맥스 △팀장 △취재본부 산 업증권부 기업금융팀장 고유권

부음

▲이근호(자영업)·형호(노원구청 평생학습과 전문교육팀장)·필호(자영업)·중호(대진증권 영업부 차장) 모친상, 왕영진(자영업) 장모상 = 14일 오전 7시 30분,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16일 오전 7시, 031-820-3468
▲최현곤(MBC 디지털기술국 송신부 국장) 모친상 = 14일 오후, 대구의료원 장례

식장 306호실, 발인 16일 오전, 080-560-4119
▲김원이(전 서울시 정무보좌관) 장인상 = 14일, 서울 일일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20
▲김윤학(사조해포 물류팀장)씨 부친상, 문한수(YTN 호남취재본부 카메라기자)·최철호(금호고속)씨 장인상 = 14일 오전 5시, 광주 수완 스키장장례식장 203호, 발인 16일 오전 11시, 062-951-1004

“흥행 갈증... 1000만은 욕심일까요”

스타·스타를 말한다 장동건 이 말하는 장동건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건입니다. 이번에 '아저씨' 이정범 감독의 신작 '우는 남자'에서 킬러 곤 역을 맡았습니다. 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다가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모경(김민희)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죄책감에 갈등하는 인물이에요. 킬러 하면 멋진 액션과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되지만 '우는 남자'에서 제가 고민한 것은 외적 모습보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또 액션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어요. 4-5개월 정도 하루 4-5시간씩 일주일에 4회 액션 훈련을 받았어요. 영화를 준비하기 전에 체력 관리를 못 해서 초반에 많이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저씨'란 영화를 좋아해요. '우는 남자'는 '아저씨'의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에 흐르는 정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야기와 주인공의 삶이 확연히 다르고 액션 콘셉트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아저씨'와 답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담 삼아 이정범 감독에게 원빈과 '우는 아저씨'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말도 했어요.

'우는 남자'에 캐스팅되고 나서 모경 역을 누가 할까 관심이 많았어요. 곤 입장에서 모경을 연기할 배우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모경 역에 김민희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상대 배우와 작업하면서 남자 배우는 그렇지 않은데 여배우는 한순간 앞에서 깨는 느낌을 가끔씩 받았어요. 김민희가 그런 케이스죠.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깊이 있게 힘든 감정을 잘 소화해주시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선배 배우가 아닌 관객 입장에서 김민희를 볼 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보여줄 것이 무궁무진한 배

**영화 '우는 남자' 킬러 곤 역할
배역 위해 4-5개월 액션 준비
상대역 김민희 연기호흡 만족
관객 동원 불가항력적인 부분
기억에 남는 영화되면 더 좋죠**

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흥행에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출연하지 않은 작품의 흥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보지만 계속 틀려요. 영화는 완성되면 제작한 사람의 손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흥행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지요. 다만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과 흥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자고 다짐했어요. 지금 심정도 그렇습니다. 흥행보다는 좀 더 많은 관객들의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남기를 바라죠.(웃음) 500만 정도만 넘으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한국영화 시장 규모를 볼 때 1000만 영화가 1년에 한두 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1000만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이지요. 관객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해요.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서의 장동건과 배우 장동건의 선택에 있어 가끔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지만 현명하게 잘 선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두선 기자 sun@



12년만의 귀환 god 추억을 부른다

15주년 기념 신곡 '미운오리새끼' 공개 발매 1시간 만에 주요 음원 사이트 1위 "옛 명성에 기댄 일회용 마케팅" 지적도



그룹 'god' 멤버들이 케이블채널 올리브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윤계상의 원테이블'에 모였다. 지난 2012년 방송 당시 다섯 멤버는 약 8년 만에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국민그룹 god가 12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다. god는 1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지난 8일 신곡 '미운 오리새끼'를 공개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앨범 발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멜론, 멜론, 소리바다, 지니, 몽키3, 벅스 등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달성하며 식지 않은 원조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입증했다. 약 9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저력을 과시했다. 대중이 god 컴백에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기의 무게중심은 추억이다. 앨범 공개 직후 "옛날 생각난다", "여전 감성 그대로여서 좋다", "누가 들어도 god 노래다" 등 팬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추억 속에 잠겨 있던 익숙한 목소리와 친근한 멜로디가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신곡 '미운 오리새끼'는 'god표 발라드'로 불릴 만큼 god 특유의 감성을 음악에 잘 표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운 오리새끼'는 2012년, 2013년 연이어 프로듀서상을 휩쓴 이단열차기의 작품으로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는 멜로디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자신의 모습을 길을 잃은 미운 오리새끼에 비유한 가사로 슬픈 감성을 더했다.

지난 2004년 자기의 길을 가겠다며 탈퇴한 윤계상의 합류도 특별히 한몫했다. 윤계상은 지난 3일 자신의 팬카페에 "선한 마음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컴백

소감을 밝혔다. 노래 도입부에는 윤계상의 내레이션이 깔리며 중저음의 굵고 깊은 음성이 청각을 사로잡았다. 후렴구에서 다섯 남자의 화음은 완전체 god를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시기가 잘 맞았다.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슬픔과 무기력감에 빠져 어디선가 치유를 받고 싶었을 때 앨범이 나왔다"며 "미운오리를 자신에게 비유한 가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god 컴백을 반기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는 "god는 그룹으로 꾸준히 활동하지 않았고 각자 다른 소속사에서 개인 활동을 이어왔기에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었다"며 "갑작스러운 god의 등장은 추억에 기댄 일회용 추억 마케팅에 불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현빈이 출연하고 이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역린'이 누적 관객 수 320만을 돌파하며 1위를 지켜냈다.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표적'은 2위에 안착했다. TV는 KBS 1TV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시청률 28.7%(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로 1위다. 김희선, 이서진 주연의 KBS 2TV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이 24.6%의 시청률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음악은 9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지오디(god)의 '미운 오리새끼'가 진입 첫 주 1위를 차지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역린	321만 458명	2014-04-30
2	표적	204만 200명	2014-04-30
3	에메이징 스파이더맨 2	394만 613명	2014-04-23
4	리오 2	65만 4187명	2014-05-01
5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35만 5728명	2014-04-24
6	라스트베가스	11만 406명	2014-05-08
7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74만 5786명	2014-03-20
8	한공주	21만 625명	2014-04-17
9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395만 8749명	2014-03-26
10	몬스터 왕국	3만 5549명	2014-05-01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진주비고
1	미운오리새끼	지오디	진입
2	봄 사랑 뱃꽃 말고	하이포, 아이유	-1
3	200%	악동뮤지션	-1
4	중독	엑소-K	진입
5	아생화	박효신	-2
6	미스터 추	에이핑크	-2
7	썸	소유, 정기고	-2
8	불꽃	백지영	진입
9	기브 러브	악동뮤지션	-2
10	인연	윤민수, 신용재	-4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사랑은 노래를 타고	28.7	KBS 1TV
2	참 좋은 시절	24.6	KBS 2TV
3	KBS9시뉴스	19.3	KBS 1TV
4	정도전	19	KBS 1TV
5	천상여자	18.1	KBS 2TV
6	너희들은 포위됐다	13.2	SBS
7	나만의 당신	13.1	SBS
8	아빠어디가, 진짜사나이	12.7	MBC
9	러브인아시아	12.6	KBS 1TV
10	왔다장보리	12.4	MBC

매주 목요일 밤 11시



2014 Jandiro Forest Trekking Shoes

아웃도어 트레킹화!

둘레길, 올레길, 트레킹, 트레일 워킹 등 포레스트 콤포트 슈즈!

산야로 포레스트 트레킹화는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 코스는 물론, 가파르지 않은 바위산을 오를 때에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SU2435 포레스트 트레킹화!
₩78,000원



SU2437 / SM2436 포레스트 트레킹화!
₩78,000원



SW2433 / SM2432 포레스트 트레킹화!
₩68,000원



SU2430 / SU2431 포레스트 트레킹화!
₩68,000원

내리막 미끄럼에 강하다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M2442
렌치 및 스파이크 증정

- 2014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판매가 ₩210,000원 ▶ ₩168,000원

www.jandiro.com | 제품문의: 02)6909-8834 |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JANDIRO
SPORTS

Inside >>>



공기업

22면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 랑콤

23면

대한민국은 '알바 공화국'이다

Cover Story

대한민국은 '알바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네 곳곳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는 전단지나 문구를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다.

과거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대학생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고용층이 확대되면서 2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들과 30대, 40-50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르바이트하면 단순 파트타임 근무로 여겨왔다. 하지만 정부가 아르바이트 개념이 포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면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젊은이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에게는 일자리 제공 등 재취업의 기회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사회 재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과 성별이 다양해지다 보니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도 연령,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포털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가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종류로는 음식점 서빙, 편의점 매장관리 등이 꼽혔다.

20대도 10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이 연령층은 10대보다 사무보조 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무직과 달리 일의 강도가 낮은 사무보조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손님들의 주문과 밀려드는 요청을 쉴 새 없이 듣고 만족시켜야 하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와는 대조적이다.

음식점 서빙·편의점 매장관리·사무보조...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파트타임 전선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알바열풍'에 가세

양적확대 이면엔 노동인권 사각지대 우려

20대는 또한 연극, 영화, 각종 공연 등 문화생활과 관련된 아르바이트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높은 시급을 주는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백화점 매장 직원을 꼽을 수 있다. 30-40대는 육체적으로 힘든 아르바이트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직 위주의 업종을 선호했다. 50대는 매장관리 등 관리직에 관심을 보였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관련 전문적인 업종을 기피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알바 열풍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일자리는 구직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해 일하는 계약직 형태로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나 연장이 없었다. 하지만 일자리의 연속성 등 안정된 일자리 제공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최근 기업들은 계약 조건에 '재계약 가능', '근무기간 연장 가능'이란 말을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운 이 일자리는 도입 초기 또 다른 알바지만 낯선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이 분야 채용을 늘리고 있다. 또 일반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다양한 직군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양적 확대도 좋지만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 고용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서울 명동에서 인형옷을 입고 판촉 활동을 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더위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카페 서빙



사무보조... IT직종은 기피 1호



편의점 매장관리는 10·20대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택배상하차는 높은 일당을 자랑하지만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스타벅스 직원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50·60대 여성들의 모습.

연령대별 선호하는 알바는

취업준비생 신인수(28)씨는 '알바의 달인'이다. 패밀리 레스토랑, 고깃집, 호프집 등 각종 서빙은 물론 놀이공원 인형탈 쓰기, 사극 보조출연, 백화점 식품매장, 휴대전화 판매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거쳤다. 그런 그는 가장 힘들었던 아르바이트로 '택배 상하차'를 꼽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원 박찬미(30)씨는 요즘 주말 아르바이트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업무 강도가 낮은 대신 월급이 150여만원에 불과해 월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빼듯하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 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고 싶지만 30대에 접어든 나이가 은근한 걸림돌이다.

10·20대 음식점·커피전문점 '1위'

30대 포장·조립 등 생산직 좋아

50대 이상 고객상담·운전직 희망

캐디·학습지 강사직 선호도 낮아

과거 10·20대 젊은이들의 '용돈벌이'로 여겨지던 아르바이트가 이제는 전 연령대로 폭넓게 확산됐다. 직종을 망라한 아르바이트가 쏟아지고 수많은 이들이 구직에 나서지만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한 선호도도 명확하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전국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 선호 직종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으로 나타났다. 이어 편의점 매장관리, 카페 서빙이 뒤를 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위인 편의점 매장관리를 제외하고 1-10위가 전부 서빙 계열이란 사실이다.

음식점과 카페 외에도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패밀리레스토랑, 연회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했다. 이는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서빙 아르바이트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역시 1-3위는 서빙 아르바이트가 차지했다. 카페, 음식점, 커피전문점이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10대와 20대의 아르바이트 선호도 차이점은 사무보조(4위)나 영화·공연·전시 진행 아르바이트(7위)가 10위권 내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사무보조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휴학을 하고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생 배인희(23)씨는 "서빙에 비해 체력적

인 부담이 적어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기 좋다"라고 전했다.

문화생활에 대한 20대들의 높은 욕구는 영화·공연·전시 진행 아르바이트의 인기를 높였다. 실제로 CJ CGV 영화관 아르바이트 '미소지기'는 전국 CGV 영화 무료 관람, 영화관 매점 품목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백화점(8위)이나 대형마트(10위) 매장관리 아르바이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를 자주 한다는 대학생 김현아(22)씨는 "특히 설날·추석 등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가 꽤 짝퉁하다"라고 귀띔했다.

30대 이상의 아르바이트 선호도는 10·20대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30대와 40대는 사무보조를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로 꼽았으며 포장·조립 등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가 나란히 3위를 차지했다. 30대는 자료입력·문서작성, 고객상담, 물류·창고관리 등을 선호했고 40대는 고객상담, 전화주문·접수, 대형마트 매장관리 등을 선호했다.

반면 10·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서빙 아르바이트는 40대의 경우 10위권 내에서 찾을 수 없었고, 30대는 커피전문점 서빙이 7위에 머물렀다. 이는 서빙 아르바이트 고용주들이 보다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과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50세 이상의 희망 직종 1위는 고객상담이 차지했다. 대형마트 매장관리, 운전직, 사무보조, 포장·조립이 뒤를 이었다. 퇴직 남성들이 선호하는 보안·경호·경비는 8위에 올랐다.

선호 아르바이트만큼 비선호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향도 뚜렷했다. 20대는 같은 서비스 직종이라도 내레이터모델이나 골프캐디 등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피팅모델이나 학습지 강사,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이밖에도 10·50대 모두 공통적으로 프로그래머, 컴퓨터A/S, CAD·CAM, 웹디자인 등 IT 관련 직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혜은 기자 euna@

SK 케미칼
Life Science Biz.

무릎관절염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14.6%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7%가 최소 하나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 관절염의 연간 본인 인지 유행률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중 14.6%가 관절염이 있었으며 남자에서 8.1%, 여자에서 21%로 성별차이를 보였다

[대한류마티스학회지 2009년 3월]

3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해마다 약 10만명 가량이 무릎관절증 진료인원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무릎관절증 진료인원은 남성이 매년 약 26.4%~27.4%, 여성이 약 72.6%~73.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4월]

광고심의필 : 1171-1600

알바생이 뽑은 최악의 사장은

“내 잘못 아닌데 화내면 싫어요”

“알바비 늦게 줘도 돼?” 상처받아

“알바비 올려 줄게” 가장 듣고 싶어

아르바이트는 이제 10대와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아르바이트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이 성격을 넘나들며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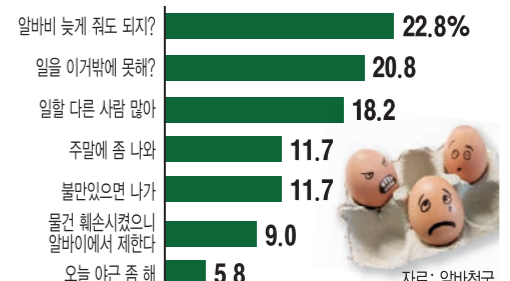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고용주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유형, 일명 '갑상 1위 사장님'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전국(www.alba.co.kr)이 전국 19세에서 29세까지의 아르바이트생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싫어하는 사장님 유형 1위에 '내 잘못 아닌데 화낼 때'(27.8%)가 차지했다.

이어 '자꾸 알바비 밀릴 때'(26.6%)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를 못 알아줄 때'(21.4%), '쉬는 날인데 나오라고 할 때'(13.3%), '업무의 허드렛일 시키길 때'(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가 내뱉는 말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연령대 구분없이 '알바비 늦게 줘도 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참기 힘들다는 반응이

고용주에게 가장 상처 받는 말은?



다. 이어 '일을 이거밖에 못해?', '일할 다른 사람 많아'도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주말에 좀 나와'와 '불만 있으면 나가'가 공동 4위를 기록했고, '물건 훼손시켰으니 알바비에서 제한다', '오늘 야근 좀 해'라는 응답도 있었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에는 타 연령층과 비교할 때 '일할 다른 사람 많아요'를 가장 상처받는 말 1위로 꼽았다.

이는 결국,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 불안감이 상승해 보수보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 연령대가 뽑은 고용주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알바비 올려줄게'로 35.1%를 차지했다. 이어 '뭐든지 잘하네', '추가 수당 줄게',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나이에 상관없이 무릎엔 틀림없다 트라스트

- ▶ 노란약물 피복시감으로 빠르고 강한 침투작용
- ▶ 동그란 패취제로 더욱 강력한 부착력
- ▶ 48시간 오래가는 강한 효과

무료 관절염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 전화) 080-021-3131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 하십시오



1년 연속 대상 (2007~2012) | 2012년 대상 | 2011년 대상

“일.가정 두 토끼 잡자”... 경력단절여성 다시 사회로

시간선택제, 어디까지 왔나

신한銀 200명 모집에 경쟁률 100대 1
주부들 “육아 부담에... 시간제 선택”

정부 장려 속 기업들 확산 추세 불구
여성 적합 직종·직무 개발 아직 부족
공공기관 모범으로 민간기업 유도해야

아르바이트의 사촌(?)격인 시간선택제 채용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 재탐색 욕구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주부 김모(57)씨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하기 시작했다.

“또래 주부들이 부동산 중개나 보험판매업으로 용돈을 쓸쓸히 버는 것을 보고 나도 집에서 시간 죽이기 보다 밖으로 나가 일을 하면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살림에 보태려고 시작한 일이 지금은 업이 됐다.”

김씨는 원래 보험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 그러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최근엔 김씨처럼 경력 단절된 여성, 특히 주부를 중심으로 사회 재진출을 모색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이 재취업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당연히 돈이다. 때마침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이 같은 욕구에 부응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0~50대 주부의 취업률이 20~30대 젊은층의 취업률보다 높아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간선택제일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곳은 크게 대기업, 금융권, 일반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금융권의 도입이 활발하다.

우리은행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은행은 가장 바쁜 시간대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계약직 정규 텔러 모집에 나섰다.

특히 우리은행의 채용은 은행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은행 관련 일자리는 퇴사하면 쉽게 복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현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분야 취업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특히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곳으로는 CJ가 대표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분야 채용을 실시한 CJ는 경력 단절 여성, 시니어, 일반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을 구분해 CGV, CJ푸드빌 등 계열사에서 고용하고 있다.

이 그룹의 시간선택제 인력 채용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이 ‘CJ리턴십’이다. 2년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계열사별, 직군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채용한다. 매년 3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며 공채처럼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뽑는다.

CJ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가 많다. 또한 장기적으로 계획·운영하고 직종도 다양해 구직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신한은행도 작년 11월 시간선택제 근로자 200명을 뽑았다. 특히 당시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해 뉴스로 떠오르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분야 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가 각광을 받는 것은 역으로 우리의 열악한 육아 지원 체계를 웅변해준다. 육아 부담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로 복귀하는 여성이 많은 것. 이에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의 육아복지에 대해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다양한 일자리로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문제도 많다”며 “특히 구직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불안정한 자리다. 그런데도 육아 때문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아쉬운 게 정부의 육아 지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육아 목적의 파트타임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자리가 또 하나의 2류 일자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같은 차원에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교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합 직종과 직무를 개발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직종과 직무가 양적으로 많아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 향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은 한계가 있으니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공공선 도성을 강조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CJ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고자 마련한 맞춤형 인턴 제도인 CJ리턴십 프로그램은 여성에 맞는 시간제, 전일제 일자리 매칭 및 개발을 통해 CJ그룹 안팎으로 여성형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취지로 기획됐다. 최근 개최된 올해 상반기 리턴십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회사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CJ

세상에서 가장 욕심부리지 않는 추출

커피의 맛은 좋은 원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두도

추출에 욕심을 부리면 품질이 낮아지죠. 카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선된 콜롬비아 원두를 카누만의 기술로

욕심부리지 않고 추출합니다. 여기에 미세원두의

품미가 더해지면 신선한 아메리카노

카누가 탄생합니다



장밋빛 전망... 현실은 답답

최저임금 못받는 '나쁜 일자리' 많아

고객 응대·행정 보조 업무에 배치
지속성 보장 없어 대부분 1년 근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가정, 일·학습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퇴직을 앞둔 장년층 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다. 우선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에 익숙한 기업은 시간제 일자리에 맞는 적절한 직무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고객 대응 업무나 행정 보조업무에 시간제 일자리가 할당됐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긍정적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고용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이 2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그중 60%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자 자체가 짧기 때문에 임금 또한 열악하다.

특히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연구용역 결과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했으며 임금은 남성 정규직 대비 21%에 그쳤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17.3%에 이르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급격히 늘었다. 즉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은수미 의원은 “총 근로시간을 단축해 전일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나눔·소통·문화...한수원 '뉴 스타트'

'국민신뢰 되찾기' 전력 투구

한수원역원자력이 달라지고 있다. 단기간에 경영 정상화의 궤도에 안착하며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가 부진한 양상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부채와 복리후생 비용 감축, 경영효율화 등을 골자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수원은 오는 2017년까지 사업조정(2조5847억원), 자산매각(5414억원), 경영효율화(9291억원) 등을 통해 총 4조2308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복리후생비 또한 1인당 697만원 수준에서 517만원으로 180만원 감축하기로 했다. 임원의 성과급도 50% 반납하는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줄이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감축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경영정상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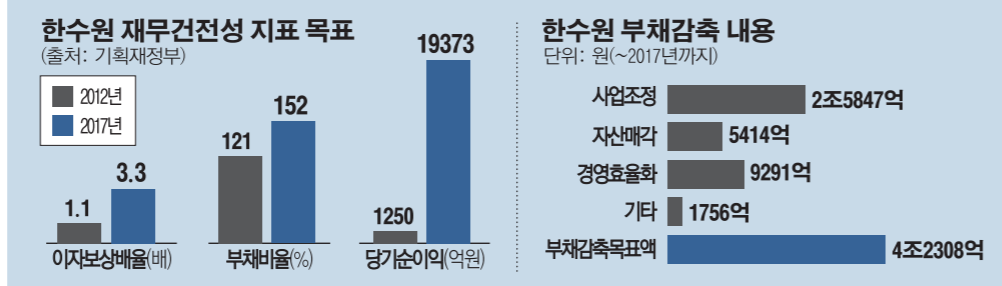
한수원은 지난달 2일 장림기념일을 맞아 '나눔·소통·미래'를 3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하는 '뉴 스타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수원은 나눔의 일환으로 이달 첫째 주를 '이웃사랑 나눔 주간'으로 지정, 모든 사업소가 동참하는 전사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 한수원은 소통을 강화해 국민 신뢰 회복에도 힘쓴다. 원전을 개방해 대국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4일과 5일 양일간 사진 마니아들을 초청, 월성원전 인근 및 한수원 본사가 건립되고 있는 경주시 일원을 사진에 담은 출사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안전한 원전 운영을 바탕으로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그린 에너지 리더로 거듭날 것"이라며 "거르고의 줄을 바꾸어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제2창사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를 통해 조석 사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한 비정상적 행태를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관철하고 있다. 조 사장은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선조처럼 한수원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혁신해 비정상화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수원은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직접 지원 방식을 벗어나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감다리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기관 첫 번째 협력기업 직원을 원전 현장에 배치해 직장 내 교육훈련(OJT)을 시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난 등 '손톱 밑 가시'의 경우 50여 개를 발굴해 각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43건을 조치했다. 장림기념일에 맞춰 31개 중소 협력기업과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협



조석 한수원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100% 국내기술로 최초로 건설한 신한울 1호기 원자로. 뉴스시스

부채감축 등 경영정상화 실행 '순조' 성과급 반납하고 복리후생비 줄여

공공기관 첫 협력사 직원 OJT 시행 벤처기업협과 동반성장 MOU 체결

조석 사장 "解弦更張 각오로 제2창사 글로벌 그린에너지 리더로 거듭날 것"

약을 맺은 것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2017년까지 150개 협력기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유기술의 이전, 해외시장의 동반성장 추진 등 공공기관에서 드물게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지난달 28일 상호협력 협약(MOU)을 벤처기업협회와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자체 보유한 고유 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전해 원전산업계의 진입을 돕는 등 벤처기업에 특화된 동반성장 지원 정책을 펼친다. 또 원자력 관련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고, 원전 부분별 구매상담회에서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위해 한수원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간 쌓아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하우를 더해 기술멘토링과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 기초 교육과 동반성장 뉴스레터 발송 등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원전산업이 폐쇄적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 내는 동시에, 벤처기업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개선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한수원의 과거 청산과 현재의 혁신에 중점을 둔다면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한 경주시 본사 이전은 한수원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3월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본사 사옥 건립 현장에서 신사옥 기공식을 열었다. 사옥은 부지 15만7000여㎡, 건축면적 7만2000여㎡에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건설된다. 각종 친환경 기술로 연간 2800톤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조명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녹색건축물 최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지어진다. 특히 경주시와의 다양한 협약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을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한수원의 개선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도 긍정적이다. 한 전문가는 "2년간의 한수원 문제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 같은 자구 노력이 합입이 올 하반기부터 한수원의 경영개선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5일 한전 구리남양주시사에서 열린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시범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 新성장동력으로

조환익 한전 사장, 원격검침사업 지원 강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동력본부 아래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담 부서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는 양상이다.

조 사장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의 예비사업자인 한전의 임지를 적극 활용, 제주 실증 사업을 통해 발굴한 사업 모델을 본격적인 사업화로 연계하는 세부 시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정부의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230만 가구에 원격검침인프라(AMI)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000만 가구, 2020년까지 2200만 전 고객을 대상으로 AMI를 구축할 계획이다. AMI는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 등을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단말기를 이용해 검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제주 조전변전소에 8MWh급 대용량 ESS를 구축해 수요 관리, 주파수 조정 등을 실증하고 있으며 현재 디젤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원과 ESS를 적용한 마이크로그리드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조 사장의 지원에 힘입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 개발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달 말 전력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국제표준 기반 통신 소프트웨어인 KEPCO 61850 라이브러리 스택(Library Stack)에 대해 UCAIug 국제 표준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IEC 61850 라이브러리 스택을 국산화한 KEPCO 61850 라이브러리 스택은 발전, 변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분야 전반의 설비자동화를 위한 국제통신표준 IEC 61850을 준용하는 전력설비 통신프로그램으로, 각각의 전자제어 및 계측용 장비에 설치된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핵심인 ICT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다.

한전은 이를 통해 기존에 1500만~2500여명원에 판매 중인 타 회사의 소스코드와 동일한 기능의 KEPCO 61850 라이브러리 스택 소스코드를 1000만 원 정도에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체에는 라이브러리 형태 로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한전 측은 이번엔 한전이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핵심 기술인 IEC 61850 통신 소프트웨어를 자체 확보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8년경에는 약 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에 대해 "스마트그리드는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지능화한 송배전 망 운용을 통해 전력 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보다 안정적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편의와 신뢰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기술로 전력 저장 또는 계통 연계에 활용할 해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의 기반을 닦겠다는 전략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공기업 마당

가스안전공, 사고조사 드론 도입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사를 위해 첨단장비인 무인항공 촬영장비 드론(DRONE)을 도입·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발생한 남양주시 암모니아 가스폭발 사고와 같이 사고현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 상황 파악



등 사고조사를 위해 드론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사고지역이 광범위하거나 고소에 위치한 사고지점도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로 건강을 PLUS+ 하세요!

- 비타민 13가지 + 7가지 미네랄 함유
- 비타민B군 일일영양소기준치의 100% 함유
- 친환경 유기농 부원료 40가지 함유
- 설탕, 인공색소, 중국산 원료 무첨가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루에 한 알 WELL PLUS+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 1,250mg x 60정 (1병 2개월 분량), 1일 1정을 씹어서 섭취(혼합 베리맛)



멀티비타민 웰플러스



답지 않아 아름다운... 시들지 않는 '美의 마법'



어드밴스드 제니피크



랑콤이 14년 동안 연구해 2009년 처음 선보인 어드밴스드 제니피크는 2029년까지 특허로 보호받는 스킨케어 제품이다. 130여개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다. 랑콤에 따르면 한국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임상실험에서도 참가자 대부분이 눈으로 확인되는 맑고 균일해진 피부 변화, 손끝으로 느껴지는 개선된 피부결 등 10가지 피부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실험 참가자 약 80%가 어드밴스드 제니피크를 7일간 사용한 후 주름개선 효과와 건강한 피부 윤기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30mL 11만원, 50mL 16만5000원, 75mL 18만9000원이다.

UV 엑스퍼트 GN-쉴드



보떼리서치코리아 조사에서 10년 연속 국내 자외선 차단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랑콤에 따르면 옥수수껍질 추출물(Maize Extract)이 포함된 피부와 유효성분 사이에 보호막을 형성, 유해한 자외선에 흡착되지 않게 도와준다. 유분감이 적어 산뜻하게 발리면서 소량으로도 하루 종일 피부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덧바를 필요가 없다. 투명한 색상의 자외선 차단제,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BB 컴플리트,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메이크업 베이스로 3종류 중 취향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30mL 5만5000원, 50mL 7만5000원.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플라즈마 세럼



'청담동 에센스', '청담동 세럼'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랑콤은 페이스 에스테틱에서 영감을 받아 코스메틱과 에스테틱을 합친 '코스메틱' 제품을 만들었다. 랑콤이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리바-이바-플라즈마 세럼 출시에 앞서 아시아 여성 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험 참가자의 80% 이상이 사용 후 피부 톤이 더 산뜻해지고 유연해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2주 후에는 피부 탄성이 증가하고 피부가 더 탄력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으며, 한 달 후에는 더 젊고 팽팽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랑콤은 조사했다. 30mL 15만원, 50mL 19만원이다.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랑콤 연혁

1935년 조항사이자 미용전문가인 아르망 프티장이 랑콤 브랜드 설립

1952년 수공으로 깎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트레조' 향수 출시

1964년 로레알 그룹 편입, 로레알 대표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

1973년 저명한 원예학자인 조르주 벨바드에 의해 2가지 장미 품종을 결합해 랑콤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정미를 탄생시킴

1974년 현재의 랑콤 로고 탄생
1975년 랑콤을 세계 최고의 마스크라 브랜드로 알려지게 만든 이명실 (Immels) 마스크라 첫선

1991년 랑콤코리아 론칭, 랑콤 인기 인티에이징 '레네르지' 라인 첫 출시

1998년 아시아인 피부 연구를 통해 '벨랑 엑스퍼트' 액티브 화이트닝 스킨 케어 2개월 안에 아시아에서 7만개 판매

2009년 10여년의 연구 끝에 제니피크 에센스 출시

2014년 랑콤 'UV 엑스퍼트' 10년 연속 백화점 판매 1위

"프렌치 뷰티 전도"... 아르망 프티장 손에서 1935년 탄생 4만명 대상으로 연구... 여성 개성·취향 맞춤 제품 개발 10년간 'UV 매출 1위'... 나이·피부색 초월 세계인에 사랑



◇프렌치 럭셔리 상징, 랑콤에 성 = 1886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랑콤의 설립자 아르망 프티장은 어떤 언어로도 발음하기 쉬운 브랜드명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랑콤메(Lancosme)'라는 고성(古城)에 반해 랑콤이라는 브랜드명이 탄생했다.

랑콤메 성은 파리 남부에서 300km가량 떨어진 사투르 부근에 위치한 프랑스 귀족 가문의 성이다.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탑과 사슴들이 뛰어노는 숲이 멋지게 어우러진 곳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이 성에는 생텍쥐페리 같은 걸출한 유명인사들이 머물기도 했으며, 쇼팽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피아노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랑콤의 철학 '전문, 혁신, 안전, 감성' = 랑콤은 △전문성 △혁신 △안전성 △감성이라는 4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최상의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랑콤은 여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며, 매년 4만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여성 개개인

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다.

1964년 세계 최대 화장품기업 로레알그룹에 편입된 랑콤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에 있는 R&I(연구혁신)센터를 통해 거듭 발전하고 있다. 로레알은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3개 리서치센터와 16개 평가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생물학, 화학, 피부과학 등 30여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로레알의 약 4000명 직원이 R&I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년 로레알의 연구비 지출은 약 8억5700만 유로로 그룹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한다. 또한 6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있는 100여개의 로레알 연구소와 연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균 2~5년간 최고의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12~24개월 동안의 연구를 통해 제품을 완성한다. 세계 1위 코스메틱 그룹인 로레알이 지원하는 연구에 힘입어 랑콤은 피부에 관한 한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됐으며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 각 분야마다 전설적인 제품을 창조해냈다. 또한 로레알 연구소에서는 피부와 뇌, 감각기관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수백 가지의 질감과 향을 개발해 오감 만족을 통해 섬세한 감성까지 담고 있다.

◇130여개국 진출, 전 세계 2만개 매장 = 랑콤은 설립 이후, 럭셔리 코스메틱의 전문지식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 각 분야별로 전설적인

제품들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130여개국에 진출해 약 2만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1991년에 진출해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현재 전국 70여개의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랑콤코리아는 10년간 백화점 UV(자외선 차단제)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UV 엑스퍼트', 아시아 1위 화이트닝 에센스 '벨랑 엑스퍼트', 젊음의 활성 에센스 '제니피크', 새로운 만능 분자로 피부과 학회에서 인정 받은 에센스 '비지오네트', 메이크업을 위한 '미라클 파운데이션'과 마스크라, 립스틱, 향수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국내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랑콤코리아는 모든 연령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각화된 신제품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5년 안에 백화점 톱3 브랜드로 도약할 방침이다.

◇장미차와 함께 고객의 아름다움을 실현 = 랑콤은 국내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섬과 동시에 이뤄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파악하고 반영한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랑콤 고유의 상징인 장미를 모티브로 하는 장미차를 제공해 서비스는 쇼핑의 피로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매장 뷰티 어드바이저와 더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선에 기자 isa@

www.izumikorea.co.kr

男子

당당한 파워 섬세한 감각 세계적 명성

자존심을 세우다!

전기면도기의 새로운 중심, 이즈미 FR-300

- 방수기능
- 무망헤드
- 팝업 트리머
- 충전표시

55년 일본 장인정신이 만든 이즈미 전기면도기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000세트 한정판매!

- 전기면도기 스탠더드 FR-300 ₩99,000**
제품특징 • 초정밀 예칭 가공 3중 면도날(mode in Japan) 사용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류동력으로 저전동 실현 • 천연 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립감 • 전세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저동 전원 조정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내기용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 제품사양 • 왕팩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5g • 구성품 : 본체/파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 전기면도기 프리미엄 FR-500 ₩129,000**
제품특징 • 전위 스위치의 오작동 방지 Lock(락) 부착 • 독립 물로팅 3중날 시스템 (센터 트리머 포함)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류동력으로 저전동 실현 • 천연 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립감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5단계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내기용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 제품사양 • 왕팩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 (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 본체/파우치/브러시/ACアダプ터/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 다기능 코털 면도기 NB-12 (전기면도기 함께 구매시) ₩17,000**
제품특징 • 생활 방수 기능으로 물 세척 가능 • 길기 편한 물결형 가공 • 콤팩트 사이즈로 출장 등 외출시 최적 • 면도날 덮개로 면도날 보호 • 청소하기 편리한 솔링 샷트 • 약 6500rpm의 강력한 회전력 및 부드럽고 조용한 작동 • 정교한 카빙을 구현하는 일체 cutter •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2중 안전설계의 망구조
- 제품사양 • 간접지 사용형 • 15V AA 사이즈 • 130.5x28x31.8mm • 중량 52g • 작동시간 약 1개월(1회 3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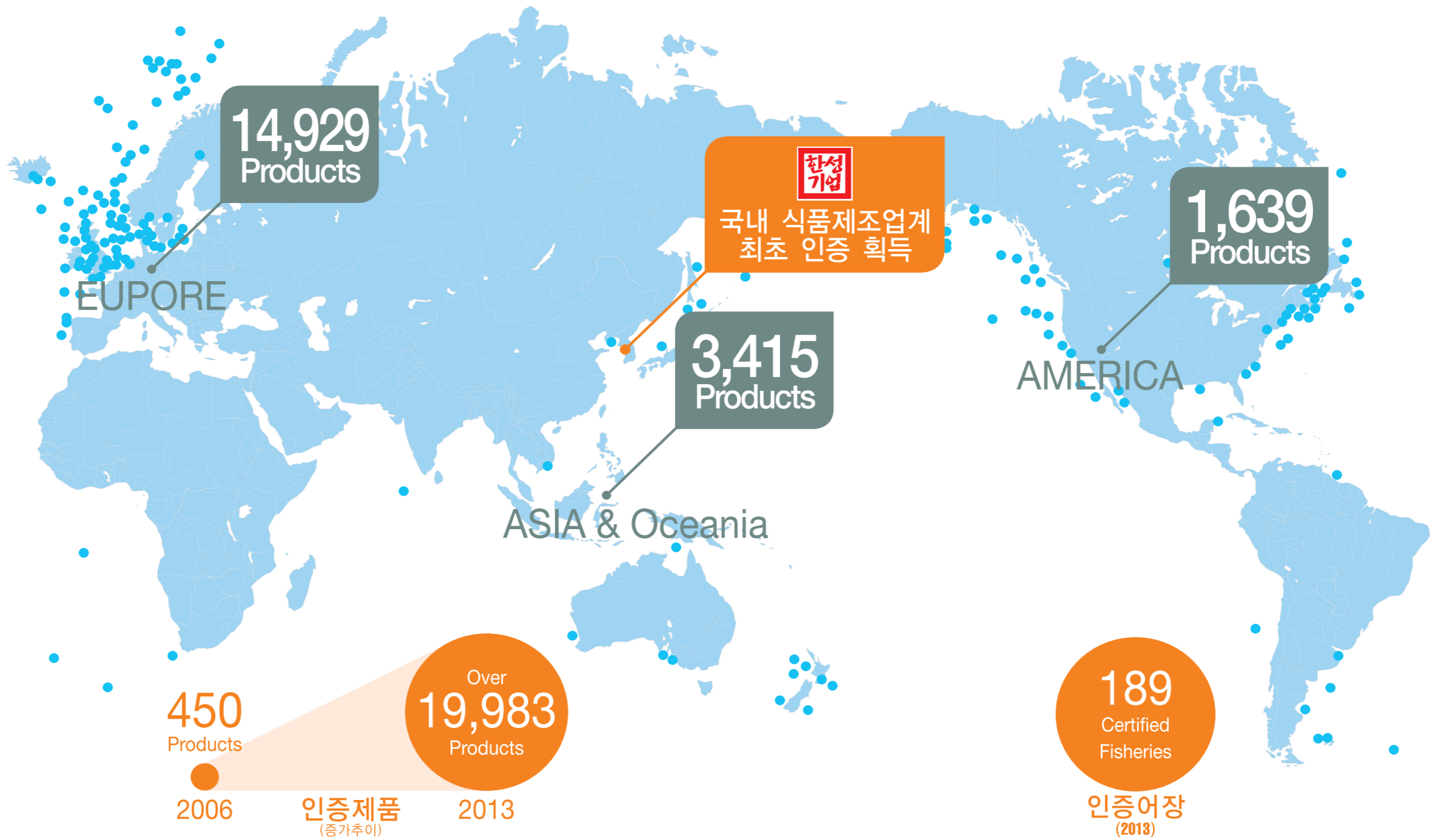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769-9000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A/S센터 : 031-791-3983
(주)오래들 | 대표: 최병철 | 서울 중구 정동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호



Since 1963

국내 식품업계 최초 MSC-COC 인증획득!

바다의 생명까지 생각하는 기업,
국제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MSC 인증 |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으로부터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검증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윤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국제 친환경 보증 시스템입니다.

MSC의 엄격한 평가기준을 통과한 업체 및 제품에는 Eco-Label이 주어집니다.

MSC COC(Chain of Custody) 인증 | Target 원료(MSC 인증원료)가 제조공정을 거치는 동안 변질 혹은 혼입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원료의 사용이력이 추적 가능합니다.



Marine Stewardship Council
Certified sustainable seafood

- 전 세계 수산업계 및 생태환경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 인증은 크게 어획/어장 부문과, 유통/가공(COC)부문으로 구분
- 유럽에서는 필수적인 인증 시스템 중 하나이며, 북미지역 내에서도 주요 인증으로 취급되기에 그 인지도는 지속적인 성장중

배당금 높아지나 가슴 뛰는 주주들

그룹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속 경영권 안정화 위해 주주환원 정책 기대...이주들어 주가 3일 연속 상승

“이제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배당금을 더 높이지 않을까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상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삼성전자 주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경영권 안정화 차원에서 주주 친화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 때문. 이견회 회장 건강 악화로 인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간배당이 결정되는 7월쯤 주주환원 정책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배당액으로 원성을 사왔다.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대한민국 최고 회사인 만큼 배당도 뛰어나야 하는데 배당이 이게 뭐냐. 이익이 많이 났으면 배당도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애플리스트에 이 행사에서 1%의 시가배당 수익률을 제시했고, 또 올해 들어서도 잉여현금흐름 대

비 주주환원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글로벌 IT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은 인색한 수준이다. 특히 라이벌 기업 애플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애플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를 900억 달러로 당초 계획보다 50% 확대하고 분기별 배당금도 약 8% 늘리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주식을 7 대 1로 분할해 유통량을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금과 배당 비율은 삼성전자가 1%, 애플은 2.4%다. 켈컴의 경우, 현재 연평균 잉여현금흐름의 75%를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기대에 못미치면서 주가도 정체됐지만, 최근 강세를 돌아섰다. 3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 12일에는 4%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 회사 같은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견회 회장의 건강 악화 속에 지배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대두되며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며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인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 존속법인인 삼성전자지주사(가칭)가 분할 신설법인인 삼성전자사립회사(가칭) 지분을 확대를 위해 자사주(현재 11.4% 보유)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면 주주수가 줄어드는 반면 주당순이익은 증가해 사실상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다.

김영준 교보증권 센터장은 “이견회 회장 이후에 대한 우려로 주주들이 걱정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현금 보유를 삼성전자가 오히려 친주주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계열사의 먹거리 사업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가 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IBK 새사장 이달말 선임 증권가 수장 인사 마무리

30일 임시주총·이사회 정해근·신성호·김명관 신임사장 후보로 거론

IBK투자증권이 이달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조강래 사장 후임을 선임한다. 이로써 올해 여의도 증권가 사장 인사가 마무리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오는 30일 이사 선임에 앞서 주총과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강래 현 사장은 교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선임되면서 계열사 사장들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조 사장은 임기도 만료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선임된 후 작년 5월에 임기 1년이 연임돼 3년간 재직해왔다.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정해근 동부증권 부사장과 신성호 우리신물 대표, 김명관 BS투자증권 부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IBK투자증권의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 올해 여의도 증권가의 사장 인사는 마무리된다.

주가 하락과 거래 감소로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새 수익사업 발굴 등을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장들의 거취도 점차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증권사가 수장 교체를 통해 분위기가 쇠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수장 교체가 아닌 연임 카드를 빼들었다. 증권사 실적 악화가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증권업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대우증권과 HMC투자증권, SK투자증권, NH농협증권 등의 사장이 교체됐고 신한, 대신, 교보증권 등의 사장은 연임됐다.

설경진 기자 skj78@

대우증권 주식계좌 ‘티몬’에서 만드세요

소셜커머스 계좌개설 이벤트

KDB대우증권은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몬스터를 통한 계좌개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티몬을 통한 계좌개설은 티몬몬스터 홈페이지에서 상품명, 지역을 고객이 선택하면 KDB대우증권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계좌를 개설해 주는 서비스다.

KDB대우증권은 티몬을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티몬적립금 2만원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제공하며, 적립RP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게는 연 4% 우대수익률을 제공한다.

적립RP상품은 연 4%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19세에서 35세의 신규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없이 가입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조완우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은 “금융과 소셜커머스를 결합해 고객에게 찾아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문계좌 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정희 기자 jcha@

“원화 강세·스타마케팅·사물인터넷 주목”

신한금융투자 금융시장 포럼

신한금융투자는 스타마케팅,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관련주를 올해 유망 중소형주로 꼽았다. 코스피밴드는 1800~2200선을 제시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금융시장 포럼’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를 1800~2200으로 제시하고 올해 3분기까지 조정을 거쳐 4분기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한국경제의 새로운 버전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R&D 투자 확대, FTA를 통한 시장 경쟁, 내수 확대와 서비스기반 구축,



신한금융투자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신한 금융시장 포럼’을 본사 신한way홀에서 개최했다. 14일은 ‘하반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주요 산업전망’, 15일은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3.8%,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50원을 전망했다.

최석원 스톡캡 팀장은 원화강세, 스타마

케팅,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관련주를 유망 중소형주로 추천했고 이신엽 시황팀장은 하반기 이슈로 K-zone과 내수 르네상스를 제시했다.

김미정 기자 mj@

SGA, 사물인터넷 보안솔루션 정조준

대표 직속팀 신설... 출시 준비

SGA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물인터넷 보안솔루션 사업에 본격 나선다.

SGA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발 TFT를 결성해 개발 중인 사물인터넷 보안솔루션이 최근 70% 이상 개발 완료됨에 따라 대표이사 직속 팀을 신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도 회사 측이 사물인터넷 보안솔루션 개발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개발을 통한 공식 영업 개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SGA는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시장 분석·수요처 발

굴을 통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내년에 해킹으로 인한 사물인터넷 관련 보안 피해 규모가 13조4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 시장을 정조준하기로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GA는 MS 임베디드 OS 공식 총판으로 지난달 초 지원 종료된 MS XP 임베디드 OS를 쓰는 ATM기나 POS단말기 해킹 위험을 막기 위한 보안솔루션을 상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나 의료기기 센서 등 크기가 훨씬 작은 사물인터넷 기기를 위한 보안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이성용의 화제의 신작

월세의 신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수익형 부동산
종자돈 500만 원에서 10억까지 리얼 가이드라인!

읽을 때만 이해되고 적용 못하는 책 말고,
해결방안은 내 문제로 남는 책 말고,
실전 노하우로 진짜 부자가 되는 책!

- 5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만드는 투자물건은?
- 내가 직접 원금을 지어 월세를 놓는 방법은?
- 수익성 좋은 부동산의 조건은?
-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0급 부동산은?
-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할까?
- 유지·보수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 공실 없이 잘 회전되는 부동산은?
- 대출을 활용하는 올바른 기술은?
- 노후를 보장해주는 수익형 부동산은?
- 어떤 아파트가 월세수익의 정답인가?
- 어떤 오피스텔이 월세수익의 정답인가?
- 어떤 투자가 임대차익과 임대수익 모두를 만족시키는가?

30세 대한민국 최연소 혁신 CEO MBC 경제매거진 출연 MBC 불만제로 참여 SBS 부동산정책토론회 출연

특·별·부·록* 수익형 부동산 최신 정보 수록

경매정보 사이트 우리옥션 20% 할인권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코스닥 '들었다 놔다'... '요물' 된 사물인터넷

한국전자인증·효성ITX 등 수직상승... 사업 초기단계 '묻지마 투자' 주의해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사물인터넷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뒤따르며 사물인터넷 관련업체 주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사업은 '걸음마' 수준으로 관련주에 대한 '편식'은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물인터넷이 IT사업의 화두로 나타나며 시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사물간 정보가 상호 전달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스마트(Smart)'란 단어가 자리잡고, IT업계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R&D투자 역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넘어서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LG전자의 '홈넷' 뿐만 아니라 삼성SDS가 상장 이후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확대시킬 것이라 전망까지 더해지며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전자인증, 효성ITX, 모다정보통신, 이루은, 비츠로시스, 기가레인, MDS테크, 알파칩스, 유비벨룩스, 이그잭스, 파수닷컴, 유비쿼스 등이 사물인터넷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2014년 1월 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83% 상승했다. 같은 기간 효성

ITX와 기가레인 등은 각각 262%, 177% 상승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수혜 기대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성장 모멘텀과 정책적인 장려 효과가 긍정적 요인이지만 종목별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테마주의 특성상 반짝 효과에 그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물인터넷 테마의 풀림현상으로도 '날뛰기'가 이어지면서 일회성(一喜一悲)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현대증권에서는 "테마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면서, "광범위한 사업 범위"로 인해, 구체적인

사물인터넷 관련주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분야	주가 수익률
한국전자인증	기기인증솔루션 83%
효성ITX	클라우드 서비스 262%
모다정보통신	무선데이터통신단말기 35%
이루은	게이트웨이(M2M) 48%
비츠로시스	무선 M2M단말기 솔루션 25%
기가레인	고주파 통신 부품 177%
MDS테크	임베디드 솔루션 54%
알파칩스	시스템반도체솔루션 47%
유비벨룩스	인증 및 보안 3%
이그잭스	근거리무선통신(NFC) 22%
파수닷컴	시큐어코딩 109%
유비쿼스	네트워크장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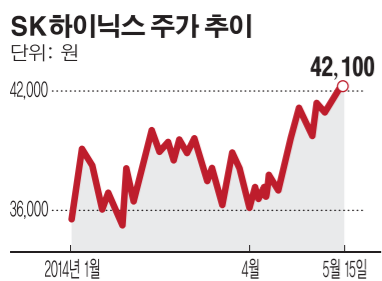


(주가수익률: 2014년 1월 2일~5월 14일 총기준) ※ 출처: 한국거래소

매출과 이익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에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인 수혜가 모든 종목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스마트홈 관련 삼성전자, LG전자, 대형주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청 기자 jcha@



'D램 2위 탈환' 하이닉스 시총 30조 돌파 초읽기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D램의 장기 공급 전환 추세로 가격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점하며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며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들어서만 15% 가까이 상승하며 시가총액 30조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에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와 포스코의 주가는 급등락을 보이며 현재 시가총액 순위 3위, 4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시가총액 30조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적 개선과 D램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에는 신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출시와 중국 모바일시장 성숙기 진입으로 모바일 D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정 기자 imj@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11 이수그룹

엑사켴·(주)이수 오너가 지분 30%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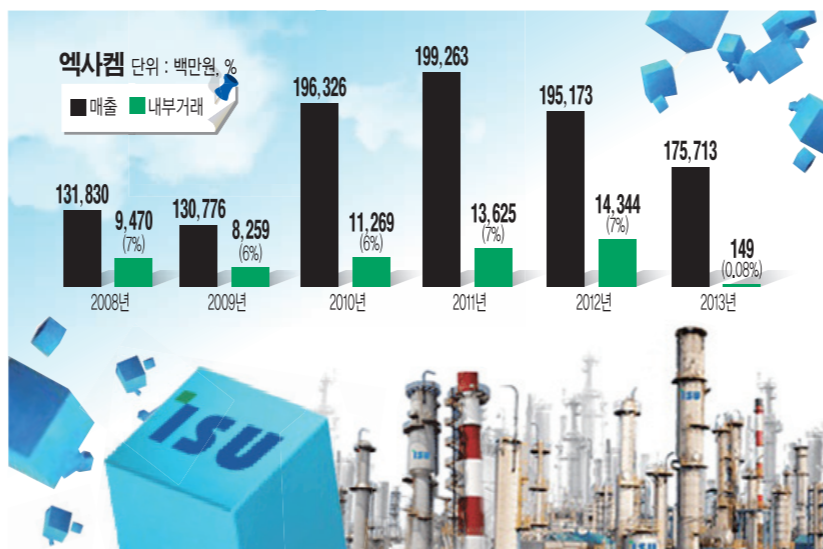
수직계열화로 일감몰아주기 '0'

이수그룹은 창업자인 김준성 회장이 1969년 설립한 이수화학을 모태로 성장한 기업집단이다. 김 회장은 박정희 정부가 석유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울산 석유화학 공장을 민영화하자 이수산업을 통해 양도받아 이수화학을 세웠다. 이후 잇달아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2000년 창업자인 김준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아들인 김상범 회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2세 경영이 시작됐다. 2003년에는 지주회사인 (주)이수를 설립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수그룹은 지주회사인 이수를 포함해 국내 12개 계열사와 9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계열사로는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 이수엠피지스와 이수건설, 이수시스템, 이수창업투자, 엑사켴 이수, 이수엑사보드, 이수엑사플렉스, 토다이수, ISU-로즈투자조합 등이 있다.

특히 이수화학은 이수그룹의 모기업이자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열사로 꼽힌다.

이수그룹은 (주)이수라는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수 위에 김상범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엑사켴이라는 회사가 있어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이루고 있



다. (주)이수 지분은 엑사켴(67.4%)과 김상범 회장(32.5%)이 99.9%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수그룹 지배구조는 김상범 회장이 100% 보유하고 있는 엑사켴과 지주회사인 (주)이수만이 오너일가 지분 30%가 넘고 이들이 기업 계열회사를 안정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형태다.

김상범 회장이 직접 이수와 엑사켴을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하다 보니, 계열사들 중 오너 지분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엑사켴과 지주회사인 이수뿐이다.

엑사켴의 내부거래 비율 변동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7% 내외를 유지하다 2013년 내부매출 비중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 엑사켴의 지난해 자산은 750억원 규모로, 매출은 2010년 전년에 비해 50% 상승하며 급성장한 이후 꾸준히 196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0% 감소한 175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36% 감소한 61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3억7000만원에서 50억5000만원으로 120% 증가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하락에 베팅... '개미의 꿈' 이뤄질까

개인 'KODEX인버스' 957억 순매수... 외국인관과 정반대

코스피 지수가 울퉁불퉁하며 처음으로 201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KODEX인버스를 집중 매수하며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지난 5거래일(5월8일~14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KODEX인버스를 95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KODEX레버리지는 3972억원 순매도했다.

KODEX인버스는 기초지수(코스피 200)의 일별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척하는 ETF로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개인투자자들이 KODEX인버스를 집중 매수했다는 것은 이들이 향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중심으로 쏠아진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 변동이 2000선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수 하락에 대비한 헤지 목적으로 인버스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단 지수하락을 이끈 펀드 환매 물량이 2000선을 전후로 대기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지수 하락 베팅이 성공할지는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과 함께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개인투자자들과 정반대 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들은 KODEX레버리지는 3946억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KODEX인버스는 101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 KODEX레버리지를 185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KODEX레버리지는 코스피200지수가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고 있어 본격적인 상승장에서 유리한 상품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KODEX레버리지를 사들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KODEX인버스 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버스 ETF의 개인 순매수 금액을 누적한 후 이를 이동 평균화했을 때, 개인이 인버스 ETF를 과도하게 순매수(하락에 베팅)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고 반대로 인버스 ETF를 매도(상승에 베팅)하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인버스 ETF의 개인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시장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며 "개인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동향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저자 부자아빠 (정재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렌버핏처럼 가치주를 담아라!



부자아빠의 주식특강 및 추천주 무료로 받기(스마트폰 시청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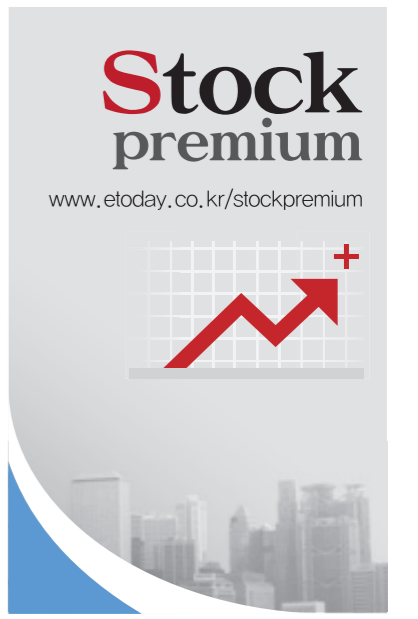
부자아빠 주식학교

검색



매주 수, 일요일 밤 8시 무료 방송진행 (www.88tv.co.kr)

구입처 : 교보인터넷, YES24, 인터파크, 전국유명서점
총 판 : 송인서적



“공급과잉”... ‘태양’ 피하는 OCI

폴리실리콘 4·5공장 증설투자 또 연기
“중국 실수요 증가때까지 상승 어려워”

OCI가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계획을 또다시 연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OCI는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 내 폴리실리콘 설비 증설 투자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악화된 사업환경과 투자효율성을 고려해 폴리실리콘 제5공장에 대한 투자 잠정 연기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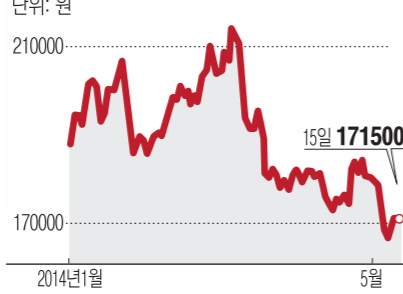
지난 2011년 OCI는 3조6000억원을 투자해 4·5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를 이유로 2012년 5월 잠정 투자 연기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장 증설 계획을 연기했다. 연산 2만톤 규모의 4공장은 건설 도중 중단됐고, 연산 2만4000톤 규모의 5공장은 투자 자체가 보류됐다.

회사측은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양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투자재가와 관련해 1년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OCI는 지난 1분기 폴리실리콘 판매가격 상승과 분기 최고 출하량에 힘입어 3분기만에 흑자전환 했다. OCI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79억원, 매출액 7979억원, 당기순이익의 32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OCI 주가 추이



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했고,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했다.

OCI는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으로 상황이 악화되며 2012년 4분기부터 적자를 보 여왔다. 지난해 2분기 이익을 냈지만 사

실상 1년 반만에 흑자전환 했다. 이같이 3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양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공장 증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상으로도 OCI는 차입금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OCI의 총차입금은 -858억원으로 사실상 무차입 상태를 보였으나 2012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OCI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추식적 상승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지만 그 폭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며 “3월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2분기 폴리실리콘 부문 영업이익자가 어려운 데다가 벤젠, TDI 등 카본케미칼제품 가격도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중국의 태양광 실수요 증가가 확인되기 전까지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k@

공시 돋보기

‘新株단지’ 비운 ITX시큐리티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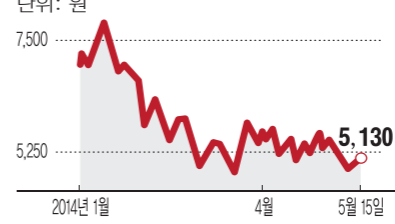
기한 남은 스톡옵션 행사 추가하락때 전망 매도 눈길

코스닥 상장사 ITX시큐리티 임원들이 최근 잇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처분한 주식은 지난 3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발행된 신주로 장내 매도를 통해 큰 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ITX시큐리티 미등기임원인 이문근 영업본부장은 전날 보유 주식 1만9500주를 주당 4941원에 장내 매도했다. 앞서 등기임원인 김영기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보유 주식 2523주를 주당 5376원에, 이어 25일에는 나머지 2만3477주를 주당 5511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보유 주식 전량인 2만6000주를 처분했다.

또다른 등기임원인 이병운 연구소장은 지난달 18일 보유 주식 전량인 2만6000주를 주당 5208원에 장내 매도했다. 이와 함께 미등기임원인 임동규 경영지원실장은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전량인 2만6000주를 주당 5055원에 장내 처분했다. 앞서 ITX시큐리티는 지난 3월 27일 제2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총 12만3500주의 신주가 다음달인 4월 15일에

ITX시큐리티 주가 추이



상장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3월 27일부터 오는 2019년 3월 26일까지였는데, 행사가 가능해지자마자 이를 바로 행사한 것이다.

이 공시에 따르면 행사자는 김 부사장을 비롯, 정희석 부사장·이 연구소장·임 경영지원실장·이 영업본부장 등 총 5명이었다. 신주 행사가격은 모두 주당 1769원으로 동일했고, 이문근 본부장(1만9500주)을 제외하고는 모두 2만6000주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스톡옵션을 통해 교부받은 신주를 장내에서 처분하면서 김 부사장(재직기간 12년)은 9695만원 가량을, 이 연구소장(14년)은 8941만원 가량을 매매차익의 일ге 됐다.

강인호 기자 kangih@

계약개선 한국유리 적자탈출도 ‘뺨그랑’

한국유리공업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려던 타법인 주식을 결국 팔지 못했다. 적자 탈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유리공업에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유리공업은 폴란드 자동차 유리 제조사인 Saint-Gobain Sekurit Hankuk Polska의 주식 2만6322주(약 357억원)를 매각하기로 했으나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7.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지분 매각 취소는 매수인의 거래 취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한국유리공업은 해당 주식을 팔기로 계약했으나 같은해 10월 주식매매 계약 연기 요청을 받는데 이어 이번에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한국유리공업은 “유럽시장경제 및 유럽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 성장부진 예측에 따른 거래취소 요청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 취소로 한국유리공업은 대규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적자 탈출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한국유리공업은 적자 줄이기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유리공업은 건측결기 불황에 따라 지난해 영업적자 249억원, 당기순손실 29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디에이치피코리아 CB 물량 쏟아진다

‘인공눈물’ 수혜 주가 40% 급등... 100만株 28일 상장

디에이치피코리아가 코스닥 상장 전 발행한 전환사채(CB)물량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

15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이치피코리아는 100만주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6.58%에 달하는 물량으로 상장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전환가격은 주당 200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전에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CB를 발행, 이들의 물량이 전량 행사됐다”며 “발기인들의 물량 출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CB는 지난 2010년 8월 코스닥 상장 전에 발행된 1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다.

디에이치피코리아는 발기인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 현재 기가레인의 주가는 7780원(전일 종가)으로 4배 가까운 차익이 예상된다.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주가는 최근 스마트폰기기 이용확대로 안경인구 증가와 안구건조증 환자 증가에 따른 인공눈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화학 시장에서 일회용으로 움직이면서 올 들어 4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고령화, 렌즈착용 증가, 라식·라섹 수술 등으로 안과용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모회사인 삼전당제약과 R&D, 마케팅, 원자재 구매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최석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일회용 인공눈물 시장에서 자체 제품 기준으로 2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라며 “삼전당제약의 안정성에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에도 대규모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당분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이치피코리아 주가 추이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번 대규모 전환권 행사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물량 부담에 따른 약세 해소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피코리아는 하이제1호 기업인수목적(SPAC)과 합병해 지난해 11월 상장했다. 이미정 기자 imj@

워런트 행사 붓물... 파인테크닉스 ‘오버행’ 고개

향후 행사할 물량만 615만주

파인테크닉스의 워런트(신주인수권)가 잇달아 행사되고 있다.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워런트만 해도 615만주(118억원)에 달해 향후 오버행이슈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인테크닉스에 55억원 규모의 워런트가 행사됐다. 발행주식의 11.59%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오는 28일 상장될 예정이다.

파인테크닉스는 2011년 10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1회차 70억원, 제2회차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1회차는 산은캐피탈이 인수했으며 70억원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전량 유진투자증권에 매각했고 이 중 50%가 파인테크닉스

의 최대주주인 흥성천 대표이사에 팔았다.

2회차 역시 유진투자증권, 한화증권이 각각 30억원, 무림캐피탈, 위드창업투자회사 각각 20억원을 인수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전량의 워런트는 흥성천 대표이사사들였다.

이번에 행사된 워런트는 발행 당시 행사가는 9050원이었으나 이후 조정을 거쳐 1945원으로 결정됐다. 행사당일인 14일 종가가 2395원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평가이익은 12억700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지분을 10% 이상 늘릴 수 있는 대규모 물량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4월에도 3차례에 걸쳐 473만주의 워런트가 행사됐으며 남아 있는 물량만 총 118억원어치에 달한다. 신규로 발행 가능한 주식은 615만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20%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ELLE
TIME & JEWELRY



2014년 여름 바야흐로 휘센의 계절입니다

올 여름도, 4°C 더 낮은 시원한 바람과
상하좌우 빈틈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을 휘감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휘센의 바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2014
신제품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 불어 올 휘센의 새 바람



국내유일!
4°C 더 낮은 바람으로 더 시원한
아이스 쿨파워



사람은 더 시원하고,
공간 전체를 빈틈없이 냉방하는
포커스 4D 입체냉방



황사, 0.02µm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퍼펙트 공기청정



전 모델 에너지프런티어 획득
전기로 걱정없는 절전 에어컨
초절전 인버터

LG WHISEN